

# 소화생

국립도서관  
보관  
소화생

7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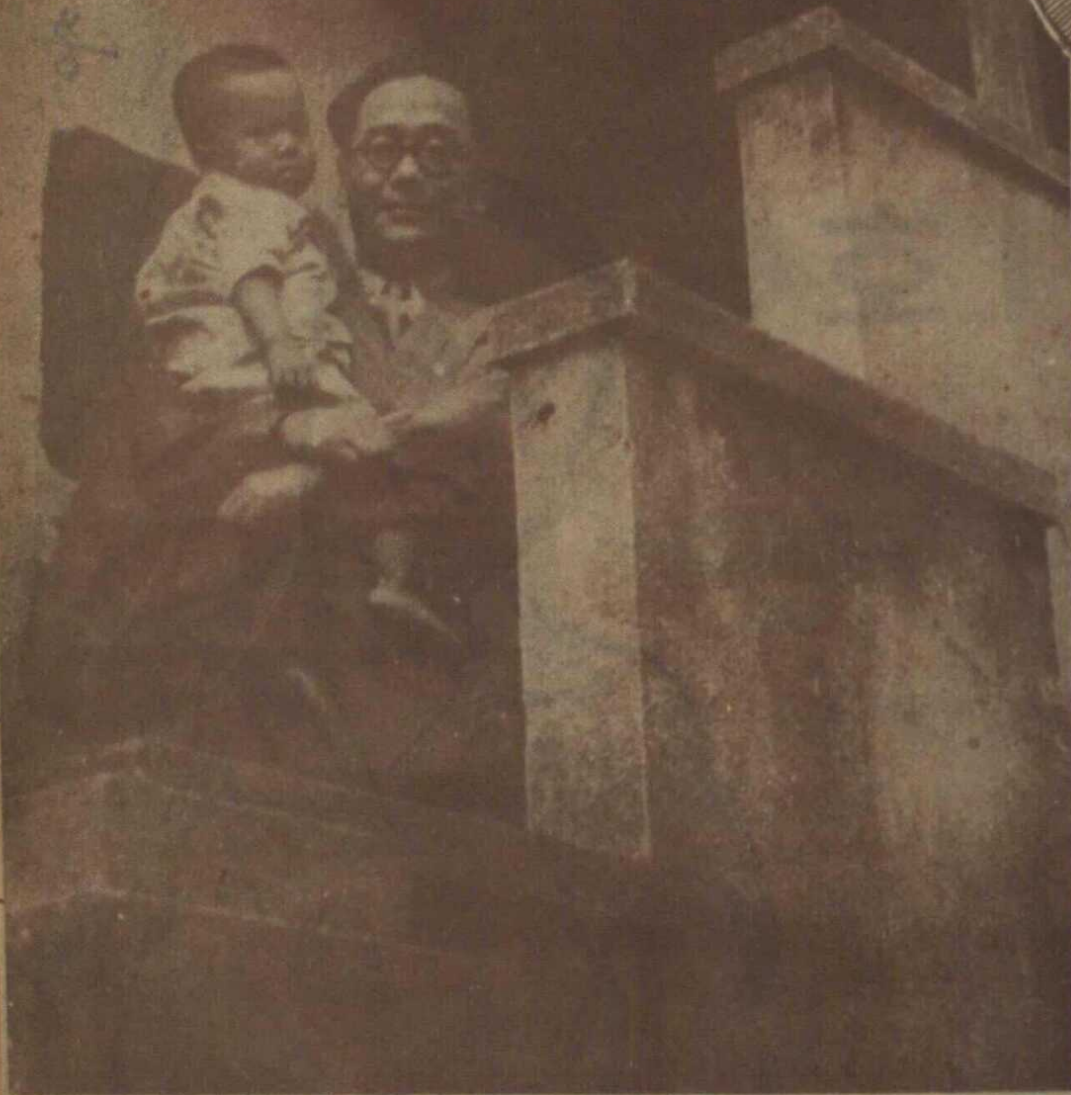
아협 발행

10월 10일



# 하루 일을 마치고

윤석중



나는 3남 2녀를 두었다. 막내동이는 세상 난사내아이로 이름은 혁이다.

우리 혁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아빠의 모자다. 왜 그런고 하면, 아빠는 모자만 메 쓰면 뒤편 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하려고 옷을 갈아 입자, 혁이는 울 준비를 하고 있다. 가 모자를 메 쓰자마자 오아 울어버린다. 그때 이따금 모자를 못에 걸어둔채 맨머리로 나가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날은, 모자가 있는 것을 보고서 없는 아빠를 찾아 방방이 돌아다니며 하루 중

일 첫 애를 쓸 것이 마음에 걸려서 모자를 안 쓰고 나간 날은 일찍 돌아오곤 한다.

저녁 때, 하루 일을 마치고, 대략산 얼굴목을 풀어서 제일 먼저 아빠를 발견하고 방울처럼 달랑 달랑 뛰어오는 건 우리 혁이다. 그러면 아빠는 아기가 제일 싫어하는 모자를 일흔 벗어버리고 아기를 안고는 집으로 들어간다. 하룻 동안의 괴로움 모자로 날리면서 혁이를 안고 우리 집문을 들어설 때처럼 즐거운 때는 없다.

# 소학생

4282년 10월 1일 발행

10월치 71호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이달의 메모★

- 10월 3일...개천절 (開天節—작년까지 슬며 10월 3일이던 것을 올부더 양력 이 날로 국회에서 정하였다.)
- 10월 6일...수석(秋夕—음력 8월 15일)
- 10월 9일...한글날 (세종 대왕께서 한글을 지어 반포한 날 서기1446년). 한로(寒露)
- 10월 17일...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요 그리고 피아니스트인 프랑스의 쇼팽이 세상을 떠났다. (서기1849년)
- 10월 18일...공자의 탄생하신 날 (서기전 551년 음력 8월 27일)
- 10월 26일...안중근의사가, 만주 할빈역에서 일본의 이종 박관(伊藤博文)을 쏘아 죽였다. (서기1907년)
- 10월 24일...상강(霜降)



그림 • 조 병 덕

## ☆차 레 ☆

- 장편소설 • 이슬이 내릴 때 ..... 경 인필 (18)
- 모험소설 • 모 오 구 려 ..... 작 은 말 (34)
- 동화 • 배를 다루는 노래 ..... 김 요섭 (8)
- 풍자 • 한 가 위 ..... 박 일우 (46)
- 동요 • 드 라 지 짓 ..... 박 정걸 (36)

소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설가 사인화가 라는 필명 ..... (28)

☆할금날의 뜻과 우리의 할금 ..... 장 지영 (4)

- ☆일루성에서 무루봉까지 ..... 조 종인 (26)
- ☆우루라 공부 ..... 조 용만 (7)

### ☆우루라공부

- ☆우루라공부 ..... (50)
- ☆성공의 비결 ..... (23)
- ☆새 공 부 ..... 윤 태영 (12)
- ☆우루라공부 표가(개성고려국민학교) ..... (44)
- ☆물 넘 기 ..... 박 은섭 (10)

우루 동무 동시집 ..... (41)

- 화보 • 화로 입을 마치고 ..... 윤 석중 (2)
- 화보 • 거북이 이야기 ..... (55)

- 이상도 하다 ..... (25)
- 소년 삼척 문답 ..... (13)
- 팔팔박사 ..... (33)
- 화취학사 ..... (52)
- 소학생구락부 ..... (54)
- 씨 등 이 ..... (54)
- 만물고 나서 ..... (54)

아동자 아련 삼라가 문제 ..... (53)  
7월치 애독자 아련 삼라기 발표 ..... (53)

☆그림 그리기 분수  
정현웅 • 임동은 • 김지환  
조병덕 • 김기창 • 최수업  
정창 • 김 의환

# “한글날”의 뜻과

10월 9일은 뜻 깊은 “한글날”이다. 우리 민족의 문화가 크게 비약되었던 이 “한글날”의 참 뜻은 어디 있는가? 한글 학회의 장 지영선생님에게 말씀을 듣기로 하자.

## 우리의 할일



한글 학회 장 지 영

(그림은 장지영선생님)

어린 동무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글을 깨치지 못해서, 언니들의 읽는 책을 맘만 보아도, 그게 다 무엇인지 몰랐지요. 그래서 꼭 궁금도하고, 또 언니들이 책을 가지고 재미있게 읽는 것이, 꼭 부럽기도 했지요. 그래서 나도 언제나 학교에 들어가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저런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되나 하고, 꼭 기다렸지요. 그리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국어를 배우고, 차차 한글을 깨쳐서, 못 읽던 책을 읽게 될 때에, 여러분은 매우 재미가 났지요. 그리고 차차 동화책과 민화책도 읽고, 또 이 재미 있는 “초학생”도 읽을 때에, 참말 재미 있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에, 어른들이 보는 것인 줄로 알던 신문까지도, 읽을 수가 있게 되니,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는 것이 늘어갑니다. 이런 기쁜 일이 또 있었을니까. 이것은 다 한글을 알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요. 우리가 한글을

아주 몰랐더라면, 어떻게 이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을니까. 그러니 한글이 참 고마워요! 만일에 우리 나라에 한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무슨 글을 가지고 공부할 하며, 또 재미 있는 책들을 읽었겠을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한글을 만들어 내신 어른이, 어찌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한글이, 저 옛날에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때에는 한문만 가지고 썼답니다. 그런데 한문은 본디 우리 나라 글이 아니고, 줄줄 글이 돼서, 우리 말과 같지도 않고, 또 글자 수가 어방없이 많으며, 글자 모양도 꼭 어렵게 생겨서, 배우기가 어간 어려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한문은 아무나 다 배우는 것이 아니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 몇몇만 배웠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배우는 데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매우 재주 있는 사람이라야, 한 십년 동안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꼭 들어

앉아서 읽으면, 겨우 글 몇 줄을 읽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밤의 우리 모든 덕성은, 모두가 무직장이가 됐답니다. 그 때에는 학교도 없고, 또 온갖 과학도 없고, 또 기차나 전차나, 또는 여러가지 기계 같은 것도, 다 없었습니다. 그저 농사나 저어서 밥이나 먹고, 배플로 걸삼해서 옷이나 입으면, 살면 딱니까, 우리들은 글을 모르기도, 그저 그명저명 살아 왔지마는, 오늘날처럼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배워야만 할 수가 있게 된, 이 때에, 글이 없이, 어떻게 살았을니까. 지금에 만일 우리 한글이 없고, 한문만 쓴다면,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서, 언제 그 어려운 글을 배우고 나서, 겨우 여러가지 학문을 배우게 되었을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 이치가 복잡하고, 뜻이 깊은, 여러 가지 과학은, 한문 같은 알기 어렵고, 쓰기 불편한 글로는, 아무리 해도, 남이 알려주지 않으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있을 수 없고,

학문도 배울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이, 세계에서 가장 무식하고, 가장 가난해서, 남에게 저기만하는, 제일 불쌍한 나라의 사람이 되고말 것입니다. 이런 일은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부터 소택 여년 전에,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거머를 잘 살게 해주시려고, 어떤 해를 두고, 정신과 힘을 다 들여서, 연구하시서, 우리 한글을 만들어내시고, 지금으로 부터 504년전, 단기 3779년 9월 10일에, 이 글을 세상에 발표하시서, 우리들에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날로 부터, 우리는 우리말에 들어맞는 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아주 배우기가 쉽고 쓰기가 편하며, 그 글이 백 아를답게 되어서, 누구나 읽을지 모르하고, 다 배울 수 있고, 아무리 복잡하고 깊은 어처라도, 다 잘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 온갖 학문을 적어 놓으면, 누구나 다 필요한 학문을 배울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제속에 있는 뜻을 다 시원히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은 곧 우리가 소경이 되었던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되었던 귀가 열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우리가, 광명한 세상으로 다시 살아

난 날입니다. 이날이 얼마나 고맙고 기쁜 날입니까. 우리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경사스런 날입니다.

그러나 그 때 우리 조상님들은 자주독립할 생각이 없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부족하여, 것처럼 좋은 글을 지어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가지고, 잘 쓰려는 생각이 없이, 그저 그 어려운 한문만 쓰려고, 힘을 썼기 때문에, 우리 국민 일반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모든 학문이 발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다 알아야만 할 우리나라 역사와, 풍속과, 법률과, 모든 필요한 지식을, 다만 한문으로만 적어놓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그런 책을 읽지 못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가엾은 무식장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 때에,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한글로 모든 책을 번역해서, 다시 만들고, 또 온갖 학문을 우리 글로 새로 지어, 책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라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빠짐 없이, 다 글을 읽고, 학문을 담아서, 문화가 높아지고, 나라가 부강하여졌을 것이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500년을 내러오는 동안에, 그저 남의 속국이 되서, 종살이하는 것을 달겨여기고, 살아오다가, 지금으로



(사진은 세종대왕을 조각한 모습)

부터, 56년전 (갑오년)에 와서, 비로소 우리나라는 독립국이라는 것을, 세계에 선언하고, 정부를 새로 조직하며, 외국들과 국교를 트고, 외국의 새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 국민을 교육하려고, 학교를 세우며, 공사간에 쓰는 글월을, 한글로 쓰자고 작정하고, 차차 한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한글을 많이 쓰고, 따라서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겨나서, 그 가운데는, 주시경선생님 같은 유명한 큰 학자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내러오다가, 불행하게도 지금으로 부터 39년전 단기 4243년 가을에 왜국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우리는 왜놈들에게 참혹한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조선말 큰 사전”을 갖추자 뒷 결정의 광고를 차세히 보십시오.

니다. 왜놈들은 우리를 다 죽여 버리고, 이 나라를 저희가 영영 차지할 욕심으로,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없애려고, 갖은 악독한 것을 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말과 우리 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우리끼리 우리 말을 하는 것과, 우리 글을 쓰는 것까지도, 형벌을 주어 가면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선배들이, 갖은 곤난을 겪어 가면서도,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더욱 연구하며, 더욱 발전 시켜가는 중에,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단기 4259년(병인년)은, 한글을 처음으로 발표하신지, 꼭 여덟째 환갑 곧 480째 돌이 되므로, 우리 겨레는 이 돌을 뜻있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 그 날자를 똑똑히 알 수가 없어서, 어렵치고, 음

력 구월 그믐날에, 뜻있는 이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한글 발표하신 날을 기념하는, 축하식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이것이 한글날 축하로는 처음 이었는데 그날 그자리에 모인 이들이, 이 앞으로는 해마다 이 날에 축하식을 행하기로 작정하고, 그 당시에는 이 날의 이름을 "가갸날"이라고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이 날의 이름을 "한글날"이라고 고치고, 또 음력은 불편하니, 양력으로 고치자고 해서, 전문가에 맡겨, 계산한 것이, 10월 27일로 되었습니다. 그리다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우리 한글의 근본인 훈민정음 원본이, 경상북도 안동군 어느 집에서 발견되어, 비로소 한글 발표하신 날이 음력 9월 10일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다시

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리다가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단기 4278년 8월 15일에 왜놈들이 쫓겨나가고,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부터 한글날을 우리나라의 국경일로 정하고 이 해 10월 9일에는, 우리 겨레가 한데 모여, 축하식을 굉장하게 지내고, 시가행진까지 거룩하게 행했습니다. 이날은 이 앞으로 몇 만년, 몇 억만년이 지나더라도, 이 천지가 있고, 이 나라가 있고, 이 겨레가 있는 때까지는, 영원히 우리의 정전이 될 것입니다.

이날은 참 기쁜 날입니다. 이날은 남의 총살이에서 시들어가던 우리 겨레가, 정신으로 다시 살아난 날이며,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날입니다. 이날을 당하면, 우리는 참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갓 기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따라서 새로운 결심이 굳어집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내것을 가볍게 여겨, 이 좋은 한글까지도 쓰기를 싫어하고, 남의 것만 까닭없이 좋아하여, 남만 숭배내고 살다가, 마침내 남의 노예가 되어서, 그 비참한 생활을 하던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그 잘못을 거듭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애끼고 존중히 여겨, 내 앞은 내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말을 하고, 우리 글을 써서, 자주적으로, 남에게 귀떨어지지 말고, 빨리 빨리 한글



(사진은 훈민정음 원본의 한 페이지)

양력으로 고친 것이, 10월 9일이므로, 이로부터 한글날이 10월 9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해마다 이날을 정성껏 기쁘게 지켜오다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단기 4269년에 와서, 왜놈들이 이날 축하식을 하는 것도, 시기하고 금지해서, 그 뒤로는 이 기쁜 날도, 마음대로 기뻐하지 못하고, 단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슬픔으로 하루를 지내

을 한결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문화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 문화에 이바지 합시다.  
일본 말을 쓰지 맙시다.

한문을 쓰지 맙시다.  
영어도 쓰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말과 우리 글을

힘써 공부하고, 연구하여, 우리의 손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빛나게 맙시다.



## 학교 교과서는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나?

—백당(白堂) 현채(玄采)선생—  
조 용 만

우리 나라에 신식 학교가 처음 생긴 것은 고종(高宗) 22년(서기 1884년)에 백재학당(培材學堂)이 설립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백재학당은 지금 서울 정동에 있는 백재 중학교의 전신인데, 미국 선교사(宣教師) 이재설(李在設)이라는 분이 세운 것입니다. 이 뒤로 이용익(李容翊)이란 분이 일본에서 돌아와서 보성(博成)학교를 세우고, 여학교로서는 엄귀비(嚴貴妃)가 돈을 내어 진명(進明)여학교, 숙명(淑明)여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모두 지금으로부터 60년 내지 60년 전 일인데, 이렇게 갈방 대신 학교는 세웠지만, 그 학교란 곳에서 가르치는 책은, 역시 맹자(孟子)니, 논어(論語)니 하여, 그전 갈방에서 배우던 그 책이었읍니다. 간혹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 책을 갖다가 가르쳤으나 물론 이것은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은 역시 공자말, 맹자말을 부르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차차 일본과의 황태가 찾아지고, 그쪽 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자, 우리 나라에서도 나라에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즉 고종 32년(1894)에 학부(學部)—지금으로 치면 문교부—에 편집국(編輯局)이란 것이 설치되어서 이 편집국에서 소학교, 중학교에서 쓸 교과서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 편집국에서 처음부터 교과서 만드는 일을 도맡아 보던 분이 백당(白堂)현 채선생이 있습니다. 이 분은 1853년, 서울에서 출생하신 분으로, 교과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신학문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책을 많이 발행하였고, 또 글씨 잘 쓰기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선생은 맨처음 유년필독(幼年必讀)이라는 책을 지술했는데, 이 책은 소학교에서 쓸 교과서로서, 지금으로 치면 역사(歷史), 공민(公民), 사회생활(社會生活) 같은 여러 방면의 새 지식을 한데 모이는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관국민소학독본(新撰國民小學讀本)을 편찬하였는데, 이것은 학년에 따라 쓸 수 있도록 1, 2, 3, 4 권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이밖에도 여러 책이 있어서, 모든 학교 교과서는 어쨌든 현 채선생이 혼자 만들어낸 느낌이 있었읍니다.

이렇게 십여년을 해오던 동안

에, 세월은 바뀌어, 1905(을사)년에 일본과 보호 조약이 맺어지는 틈에 모든 나라일이 죄다 일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학부에도 일본사람의 고문(顧問)이 생기어, 모든 일을 그들이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 채선생의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독립사상(獨立思想)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가졌다고 하여 많이 못쓰게 하였읍니다.

이러하여 그 대신으로 일본에서 많은 교과서를 가져다가 번역을 하여 만들어 가르치게 되고, 편집국 사람들도 모두 고만 두개 만들어서, 현 채선생은 자연 이 학부 편집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선생이 편찬하신 그 교과서를 읽어 볼 때에, 그 형식이 구식이고, 신식이요간에, 학생들에게 뜨거운 애국심을 부어주려고 애쓴 점은, 참으로 감격할만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현선생은 그 당시에 놀라운 애국자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철 지음  
틀리기 쉬운 말

값 80원

한글 공부하는데 배우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아협 발행



여기 오백년 묵은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생각할 수는 있으나,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나무는 말할 수 없는 것을, 자기를 키워준 햇볕과 흙, 비와 바람에게 원망하였습니다.

(나는 새처럼 이 아름다운 강산을 노래할 수는 없을까?)

언제나 이런 서글픈 생각에 오백년 묵은 나무는, 오백년을 두고 매일 햇볕과 흙, 비와 바람에게 불평을 말하였습니다.

새처럼 노래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한스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세상 사람들이 금수 강산이라 자랑하는 이 대한 땅에 날기 때문에—

수놓은 듯 아름다운 산과 산, 고요히 흘러가는 맑은 강물, 간데마다 하얀, 붉은 예쁜꽃, 이 아름다운 강산을 새들처럼 날아다니며 노래할 수 없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나도 새나 되었더라면, 마음껏 이 강산 아름다운 곳만 찾아다니며 노래할텐데, 산을 덮는 안개며 골짜기에 풀잎의 이슬—)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싶는데 수풀 속에서 머리를 절끈 동이고, 도끼며 톱을 맨 사람들이, 아침 이슬에 옷을 축축히 적시고 나타났습니다.

난생처음 이 산 속에 사람이 왔습니다. 나무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무서운 얼굴입니다.

무슨 일일까?

옷통을 벗고 중얼중얼 나무 밑에서 공문을 하던 사람들은, 도끼니 톱을 들고 제각기 골여져, 모두 나무에 덤벼 들었습니다. 산을 울리는 흉터령에 맞춰 제영제영 제정쟁 나무를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쿵하고 나무 밧 그루가 큰 고향을 치며, 땅 위에 아무렇게나 쓰러졌습니다. 나뭇가지에 한가스레 노래하던 새들은, 뽕뽕이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백년 묵은 나무 차례입니다. 한참만에 오백년 묵은 나무도, 쿵 하고 고향을 치며 땅 위에 쓰러졌습니다. 옆에 나무들은 몸이 한줌이 되어 이 모양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자꾸 사람들은 나무를 찍어 넘어뜨려 산 속은 쥐어칩니다. 산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하늘이 인젠 보입니다. 매일 같이 꿈일줄 모르고 도끼질 톱질하던 사람들은, 산 속에 나무를 하나도 안 남기고, 커다라 넘어뜨리고서야, 산으로부터 물러갔습니다.

그다음 아무도 이 산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리 저리 넘어질 나무들은 혼자 남아,



“인제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는 예측하지 못할 앞날에 대한 근심에 휩쓸렸습니다. 새들도 날다와 쓸어져 누은 나무들을 슬피 울어주었습니다. 나무들은 산 위에 이리 저리 쓸어져 한 어름을 보내고, 눈오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높은 산이 되어 다른데 보다 겨울이 빨리 옵니다.

눈도 더 많이 쌓아집니다.

사람들이 걸을 수 없을만큼 눈은 퍼부었습니다. 이따금 눈에 빠진 노루며 짐승들이 눈에 덮인 산길에서 처량히 울었습니다. 그런데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산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산 꼭대기에서 나무를 하나씩 산 밑으로 밀어 내려 보냈습니다. 나무들은 눈위로 내리막길을 무서워 하며, 쭈뼛 미끄럼을 쳐서 산 아래로 자주 내려갑니다. 그 속에 오백년 묵은 나무도 미끄럼쳐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산 밑에 내리온 나무들은, 이번에는 어리 나무들이 한데 이리 저리 뭉기어 뭉뭉이 되었습니다.

“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되누?”

산을 싸안은 바람으로 눈보라를 일으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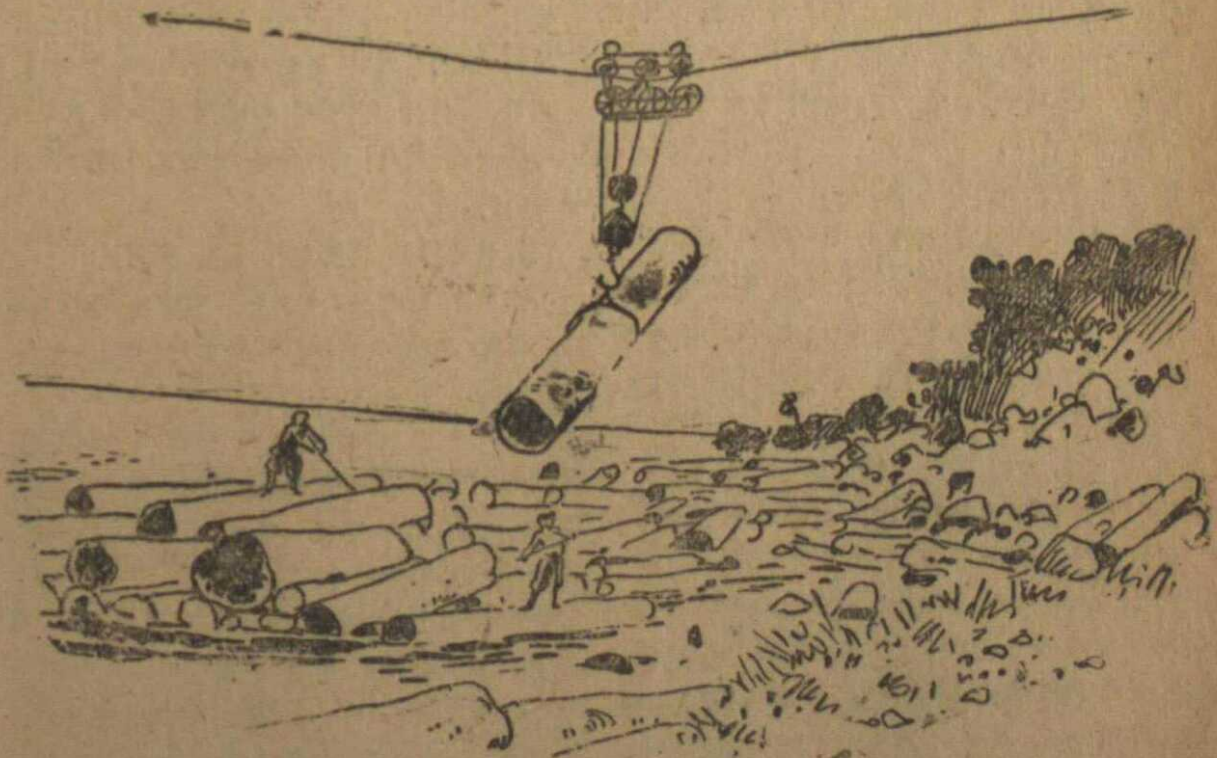
눈보라 속으로 사람들은 분주히 일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어제와 오늘도 자꾸만 나무들이 눈 위로 미끄럼쳐 내려왔습니다. 오백년 묵은 나무가 뭉뭉이 되어, 강물 위로 흘러 내려갈 때는, 벌써 두만강 얼음도 터지고 봄이 되었습니다.

홍겨운 뭉뭉의 몸노래를 실고 떠는 두만강을 내려갑니다.

찰싹 찰싹 봄팔레하는 하얀 옷의 안락비들을 구경하며, 자꾸만 이름도 모르는 곳을 찾아 내려갑니다. 오백년 묵은 나무는 생각하였습니다.

(참 살아간다는 것이 이상도 한 일이다. 내가 산 속에 있을 때야 비나 이슬이나 내 몸을 적실줄 알았지, 이렇게 두만강 물에 내 몸을 적시니— 이 봄노래만 해도 그렇지, 바람이 실어다 주는 가느다란 봄노래를, 해마다 나무들 사이에 서서, 귀 기울여 듣더니, 이제 내 등에 이 노래를 실고 두만강을 흘러가니, 세상에 살아가는 모양이 이상도 한 일—)

뭉뭉들은 두만강도 거지반 다 와서 어떤 기차가 들어오는 드시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기차



불 타고 벌채 와 있는 나무들이 산더미 같이 쌓이고 싶다면 생각을 잊어버렸읍니다.

인, 제재소(製材所)에 도착하였읍니다.

또 오백년 묵은 나무는, 제재기에 벌한 자기 모양을 내리다 보며 느낀 것이 있었읍니다.

(아아! 산타는 것은 이상한 일. 이렇게 풀려 다니다가, 내 몸 모양마저 변하는구나. 산에서 푸르게 자라던 잎을 달고 있던, 내 옛 모습은 대체 어디로 갔으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누.)

이번에는 하늘에 구름도 걸릴듯한 검고 높은 굴뚝이 서 있는 공장에, 오백년 묵은 나무는 여러 동무 나무들과 들어왔읍니다.

이 공장은 종이 공장입니다. 이 공장을 거치고 나온 오백년 묵은 나무 들은, 아니 이제 나무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종이가 되어 쥐들이 살림차리고 있는, 서울 어느 인쇄소에 종지로 팔려와, 어둔 창고를 지키고 앉아 있었읍니다. 들랑거리는 쥐들을 통하여, 종이들은 이 인쇄소가 어느만큼 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일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었읍니다. 어제는 밤일 할 때, 남작공하고 여직공이 감독 눈을 피해 공장 구석에서 무엇이 어찌구 저찌구 속살거리던 이야기도, 재미나는 듯 전하여 주었읍니다. 종이는 이 말을 들으니, 밤말은 쥐가 듣는다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혼자 웃었읍니다.

오백년 묵은 나무로 된 종이는 이 창고 속에 한 일년을 있었읍니다.

일년 동안 창고 속에서 종이는,

“종이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뿐이었읍니다. 오백년을 두고 햇볕과 흙, 바람과 비에게 원망한 종이는 새처럼 이 강산을 노래 할 수 있게 해달라던 옛적이 지금 새삼스레 생각났읍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다.)

종이된 오백년 묵은 나무는, 이쯤까지 그의 생각은 깊어졌읍니다.

(인젠 필대로 페라. 어떻게 되나 그것만 구경하자.)

인쇄소 창고에 들어온 후 일년이 된 나무는, 야니 인젠 종이죠— 종이는 새처럼 이 강산을 노래

그 어느날 인쇄소 사무실에는 머리가 덜수룩하고 파아란 얼굴의 젊은 청년이 찾아 왔읍니다. 찢기없는 얼굴에 크게 뜬 두 눈만이 빛났읍니다. 그는 저배인 책상 위에 원고 봉투와 돈을 내 놓았읍니다. 몇마디의 약속이 있고, 그는 눈오는 추운 길을 외루도 없이 사라져 버렸읍니다. 오백년 묵어서 종이된 종이를, 사람들이 안고 나가며 시집(詩集)을 박는다고 저희들끼리 말하였읍니다.

공장에 들어와 이리 돌리고 저리 넘기고 온몸에 무수한 글자를 찍힐 종이는, 이 손에서 저손으로 옮겨 가는 새, 하나의 예쁘장한 책이 되었읍니다.

시집 “젊은 나무의 노래” 절 그림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점잖은 색으로 그려져 있었읍니다. 그만 시집된 종이는 입을 딱 버리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읍니다.

(옛날 산 속에서 소원하던 단 하나의 소원이 이제사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지다니! 꿈이나! 꿈이나! 꿈이어는 길이 깨지말아라. 내몸을 통해서 시인은 이 강산을 노래하게 되니, 곧 내가 노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느님이여 이 노래가 이제이 온 땅에 햇볕처럼 퍼지소서—) 기쁨을 못이겨, 두 손을 맞쥐고 이렇게 기도하였읍니다.

“참 세상이란 예측중지 못할 곳이다.”

기도하고 나서는 종이는 이렇게 생각하였읍니다. 정말 그말 그대로 예측중지 못할 일은 세상 일입니다.

시집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이 책 주인 젊은 시인은 추위와 굶주림에 못이겨, 찬 병들방 위에 그 큰 눈을 피욱 감고 몸도 냉들처럼 차게 되어 그만 죽어버렸읍니다.

주인을 잃은 시집은 마땅히 인쇄소에서 책방으로 가야되겠는데, 일본 경찰단이 타고온 트럭이 와서, 경찰서로 시집을 실고 달아났읍니다. 시집이 된 종이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읍니다.



(잠 세상이란 예측하지 못할 곳이다. 이것도 꿈이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종이는 붉은 나무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한자 한자 새까만 활자에, 어둠 밤에 그냥 울은 이 강산의 통곡이었습니다. 붉은 나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앞으로부터 벌레 먹어가는 붉은 나무의 슬픈 호느낌이었습니다.

그 때야 시집 박헌 종이는 알아채었습니다.

“오라 그래서 일본놈들이 이 시집을 잡아 왔구나.”

그러나 더 무서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인쇄소에서 급방 박아나온 이 시집들을 죄다 불살라 버린답니다. 이 시집을 불살라 버리는 것도 나무가 하였습니다.

시집은 예절하였습니다.

(야 나무야, 너는 왜 나를 불살라니? 나도 전에는 너처럼 나무다. 우리 나무가 나무끼리 어떻게 이런 짓을 하니? 지금은 나는 종이지만, 옛날엔 백두산의 나무였단다. 너는 백두산

의 나무가 아니냐?)

이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활활 타는 불에 시집은 죄다 다 타버렸습니다.

시집 “붉은 나무의 노래”는 재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재를 날려 보냅니다. 그렇지만 단 한책 시집 “붉은 나무의 노래”가 이 세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쇄소에 있을 때 어느 여직공이 좀 읽어보려고, 돈은 없고하여 책보 속에 가만히 감춰 가지고 나온 것이 그 여직공네 장롱 속에 간직하여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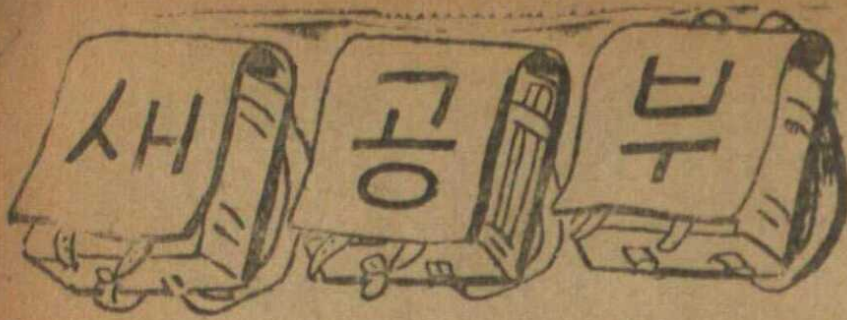
죽은 시인의 그 아름다운 두 눈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가기의 시집을 다 태움을 당한 별은, 밤마다 이 세상에 단 하나 남아있는 시집을, 남몰래 꺼내 읽어주는 소녀로서 별은 행복하였습니다.

소녀어 기리 복 받으라.

별은 저녁마다 하늘에 나올 때, 뒷끝목 석유불이 비쳐오는 소녀의 적은 집을 향하여 축복하였습니다.

(끝)



(지도) 동덕 여자 국민 학교 교장

윤 태 영

문 제 (2) [시간 20분]

●문제의 목표

이것은 문제를 보고, 그것이 무엇 중에 하나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물건이나 또는 한가지 일을 보고서, 그것이 무엇이나, 어떠한 것의 한 부분인가,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의 한 가지인가를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한 가지 일을 보고, 전체를 생각해 보는 힘을 기르는 데에 가장 필요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한 일에 대한 즐거움을 얼마나 잘 아나 공부하여 보기도 합시다.

◎설 명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연필은 학용품의 한 가지이며, 손가락은 손 중의 하나요, 10월은 가을이라는 절기 중의 한 달이며, 꽃대는 배의 한 가지 물건입니다.

그러면 아래의 보기를 잘보고서 시간 안에 모두 맞추어 보십시오.

특히 조심할 일은, 한 가지 물건을 알아 가지고

그의 전체의 것을 쓰는데 있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잊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가며, 눈여타는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의 몸의 한부분이라는 것과 일할 중의 하나라는 두 가지 대답이 나오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가장 가까운 것의 전체를 써야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에 가까운 것은 사람의 몸보다는 **알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알림**이라는 대답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고 말할 것도 없이 여겨에 나오는 문제는 국어, 사회생활, 그리고 과학, 이러한, 여러 가지 학과 중에서 문제를 뽑아 내었으니, 어린이들은 그리 알고 종합한 대답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보기

- 연필..... (학용품)    손가락..... (손)
- 10월..... (가을)    꽃대..... (배)
- (1) 새종 태양..... ( )
- (2) 가, L..... ( )
- (3) 관음식..... ( )
- (4) 덩그 스티..... ( )
- (5) 파견이 일 년 동안 쉬지 않고 가는  
    년 곳..... ( )
- (6) 면 양..... ( )
- (7) 황 인종..... ( )
- (8) 우버 민족..... ( )
- (9) 주곡 (主穀)..... ( )
- (10) 신시 (雄桓) 천왕 (天王) 환웅 (市神)  
    ..... ( )
- (11) 후계 (沃沮)..... ( )
- (12) 진번 (眞蕃)..... ( )
- (13) 마한 (馬韓)..... ( )

어려움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상식을 계속해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를 보내셔도 좋습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는 안됩니다. 할 무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서 차폐하도록 하는 상식문제가 됩니다.

(문) 야구에서 "알파"로 이겼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 "알파"라는 것은 그리스 알파의 맨 처음 글자이며,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야구에서 2할과 배 1이라고 하면, 먼저

**소년 상인 클럽**  
공격을 한 팀이 9회까지 1점을 얻었는데, 나중 공격을 한 팀이 8회까지에 이미 2점을 얻어서, 9회 끝까지 공격할 필요가 없이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8회 끝까지 먼저 공격한 팀의 득점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9회 끝에 가서 한 점이라도 넘어서게 되면, 사합도

중이지만 더 계속하지 않고 "알파"로 이겨는 것입니다.  
(문) 쏘푸라노, 메소·쏘푸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베스의 뜻을 말하라.  
(답) 여섯물은 사람의 목소리를 갈라서 말하는 음악용어인데, 쏘푸라노는 여자 목소리로 가장 높여 울라 갈 수 있는 것이요, 알토는 여자 목소리로 알이 내려 갈 수 있는 것이며, 레

- (14) 낙랑 (樂浪)..... ( )
- (15) 배천교 (拜天教)..... ( )
- (16) 달, 책 같이 밤소 빛을 내지 않는 물건...  
..... ( )
- (17) 인천 (仁川)..... ( )
- (18) 을지문덕 (乙支文德)..... ( )
- (19) 적두산..... ( )
- (20) 고로저타..... ( )
- (21) 예수교..... ( )
- (22) 바늘..... ( )
- (23) 경기도 (京畿道)..... ( )
- (24) 윤봉길 (尹奉吉)..... ( )
- (25) 대한민국..... ( )
- (26) 아시아..... ( )
- (27) 달..... ( )
- (28) 유리, 종이 같이 빛이 지나갈 수 있는 물  
체..... ( )
- (29) 나무, 풀 같이 빛이 지나가지 못하는 물  
체..... ( )
- (30) 햇빛에서 뜨거워 생기는 노란 색.....  
..... ( )
- (31) 볼록렌즈..... ( )
- (32) 동봉 굴에 포도송이처럼 늘어질 물.....  
..... ( )
- (33) 양안경, 원시경..... ( )
- (34) 풍유석을 만든 처음 들 이름.....  
..... ( )
- (35) 코블코블 돈다.  
백백한 석순.  
알스켓 같은 석순.  
백백백백 석순.  
서로 부르고 서로 대답하는 듯한 광경.  
포도송이처럼 늘어질 풍유석.  
이러한 말은 무엇을 알려려는 말일까...

- ..... ( )
- (36) 드름, 비름, 미너줄, 탄라팜, 등의 회전  
소를 포함한 물건의 이름... ( )
- (37) 수련이 나는 우리 나라의 땅... ( )
- (38) 덩구스엔의 우리 나라의 산맥은 세계의  
몇째..... ( )
- (39) 락네사이드의 우리 나라의 광상의 분량  
..... ( )
- (40) 쇠가 무슨에만 있는 매장량... ( )
- (41) 자연(自然)자원, 동력(動力) 자원, 노동자  
원의 세 조건이 필요한 산업... ( )
- (42) 우리 나라의 지하 자원의 알려진 것의  
종류..... ( )
- (43) 음악에서 P, F, C, E, 이런 표의 이  
름을 무엇이냐 하는가... ( )
- (44) 무엇을 보고 이상히 여겨 알리는대도...  
..... ( )
- (45) 탄 물질에 닿서 되쓰는 성질을 가진 것의  
이름..... ( )
- (46) 해빛이 어떻게 쬐이며 몇 가지 빛인가를  
알아 보려고 만든 기계의 이름.....  
..... ( )
- (47) 돈이 1푼 2푼 3푼으로 변할 때에 물건이  
1푼 2푼 3푼으로 변하는 비... ( )
- (48) 정사각형인 때에 1[이 1cm 2cm 3cm  
m로 변 할 때에 넓이가 반대로 변한다  
그 비율..... ( )
- (49) 원의 반지름과 넓이의 비... ( )
- (50) 가로 수와 1일치의 식량의 비... ( )
- (51) 하루 낮과 밤의 길이의 비... ( )
- (52) 몸의 길이와 무게의 비..... ( )
- (53) 밑변이 일정한 삼각형의 높이와 넓이의  
비..... ( )
- (54) 48 : 24 : 36을 간단히 할 수 있는 수의

너는 남자 목소리로 높은 것,  
테스는 남자 목소리로 낮은 것  
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와 알토 중간에 메소·소프라노,  
테너와 테스 중간에 바리톤이  
러는 것이 있습니다.

(문) 노오벨상은 누가 어떤 사  
람에게 주는 상인가?

(답) 스웨덴에서 다이나마이  
트와 그 밖의 폭발 화약을 발명

하여 마다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오벨이란 사람이 죽을 때에,  
“내가 발명한 것은 물건을 파괴  
하는데 소용이 되었다. 이것으  
로 모은 네 재산은 전할하는데  
쓰고 싶다.”고 말한 뜻을 받아서,  
거부한 유산 가운데 1천만달  
라에 대한 이자를 상금으로 하  
여,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사  
람을 주면서 상을 준 것이 노오

벨상의 내리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는 사람은, 이학, 과학,  
의학, 문학, 평화사업의 다섯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으며 한  
사람 앞에 약 4만달라씩 줍니  
다. 해마다 각국에서 추천한 사  
람을, 스웨덴의 노오벨상 위원  
회에서 심사하여, 노오벨이 죽  
은 12월 10일에 수상식을 거행  
합니다.

- 하나..... ( )
- (55)  $\frac{1}{2} : \frac{3}{4} : \frac{1}{4}$  비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수..... ( )
- (56) 증유, 불감이 나오는 광물..... ( )
- (57) 대한민국, 미국, 비올빈의 나라의 주민..... ( )
- (58) 개, 고양이, 소는 어려서 무엇을 먹고 자라나..... ( )
- (59) 독립선언서, 손병희, 삼십 삼인 등의 이름과 관계 되는 운동..... ( )
- (60) 함산섬, 거북섬, 노랑해전의 판지 된 본의 이름..... ( )
- (61) 제주도, 울릉도, 강화도 ... ( )
- (62) 경기도, 충청남도, 함경남도... ( )
- (63) 서울, 뉴욕, 런던, 파리..... ( )
- (64) 미국, 영국, 소련, 중국..... ( )
- (65) 일본, 독일, 이태리..... ( )
- (66) 전차..... ( )
- (67) 밥, 고기, 복어..... ( )
- (68) 경부선, 경남선, 호남선... ( )
- (69) 동해, 태평양..... ( )
- (70) 비, 결례..... ( )
- (71) 압록강..... ( )
- (72) 금강산..... ( )
- (73) 고구려..... ( )
- (74) 주몽 (朱蒙)..... ( )
- (75) 경주..... ( )
- (76) 총, 폭탄..... ( )
- (77) 땀어려 된 서문 여섯 해.

- 이름도 같았다.  
말까지 배았졌다.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을 무엇을 당하였다는가..... ( )
- (78) 자유종이 울었다.  
두들기는 저 종소리.]  
부르짖는 환호성.  
봄이 왔구나.  
다시 살아 났구나.  
이것으로 무엇이 되었다 하는가..... ( )
- (79) 삼천리 강산..... ( )
- (80) "고리테일"..... ( )

★ 이번 문제의 해답은 11월치에 실립니다 ★

### 문제 (1) 의 해답

전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보내 드립니다. 이것을 보시고 다시 한 번 깊이 연구하여서 실력을 기르도록 합시다.

그러고 실력을 기르는 뜻으로 자기를 속이지 말고 접수를 적어 두십시오.

- (1) 36년. (2) 아세아. (3) 빛. (4) 발광체 (發光體). (5) 십씨 500도. (6) 한인(韓人). (7) 자유종. (8) 부르짖다. (9) 환호성. (10) 123458. (11) 조상. (12) 단군 왕검. (13) 단기. (14) 10월 3일. (15)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악의 다섯 가지 훌륭한 업적. (16) 연합국 (聯合國). (17) 278739 (18) 탄광. (19) 정용. (20) 글썽글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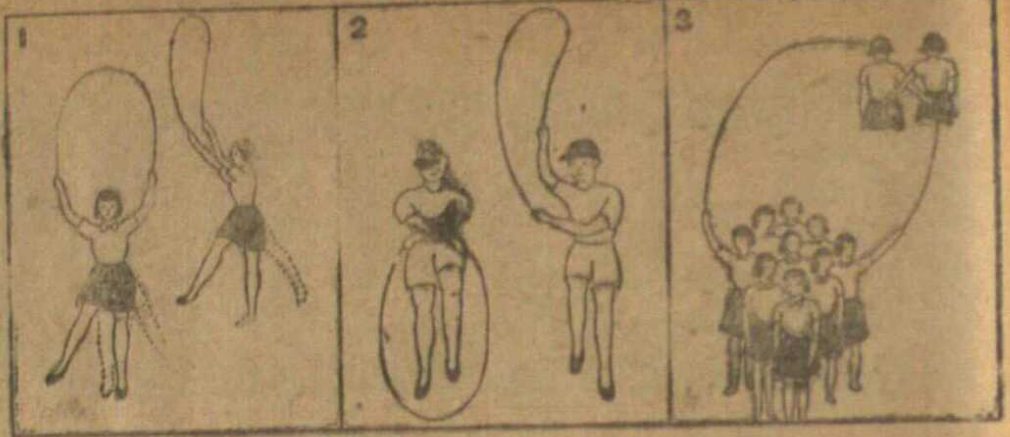
(문) 연극이나 방송극에서 "효과"라는 것은 무엇인가?  
(답)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것을, 또는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자에 대한 인상을 아주 좋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연극의 내용을 가장 효과있게 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소리의 효과를 말하며, 비 오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공장의 기적 소리 같은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는 일을 "효과"

라고 말합니다.  
(문) 메터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한것인가?  
(답) 지구의 남극과 북극을 잇대는 상상의 선을 자오선(子午線—자는 북쪽 오는 남쪽)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년 전에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일곱 해나 걸려서 그 길이를 재고, 그  $\frac{1}{40,000,000}$  은 1미터라고 정하여 도(度—길이), 양(量—부피), 형(衡—무게), 면

적의 단위로 삼은 것이 메터법의 시초입니다. 메터는 그리스어 말로 "재다"는 뜻의 말입니다. 문명국은 이것을 흔히 쓰고 있으며, 서력 1875년 "메터조약"에 들은 나라는 50이 넘었습니다.

노래 동무회 만들  
노래 동무  
100원·아협 발행





※5·6학년

①다리 빌며 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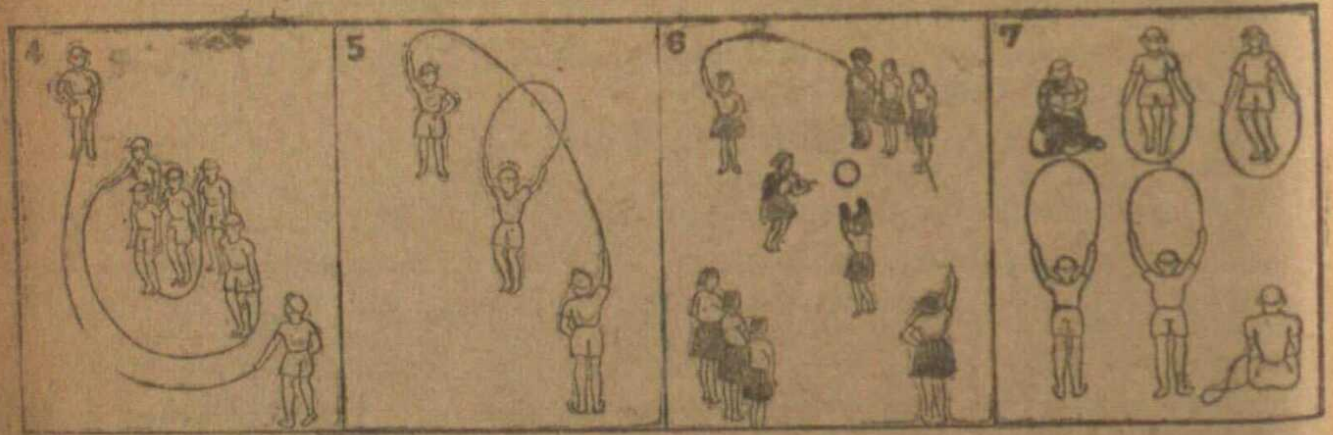
관을 쪽 뻗쳐 줄을 왼  
 왼이 두르면서, 한 다리  
 씩 번갈아, 앞 뛰, 또는  
 옆으로 훨씬 번머서 뛰  
 다.

②관 둘러 걸어 뛰기

줄을 오른(왼) 관으로  
 둘러고 오른(왼) 편을 왼  
 (오른)원관위로 엮걸어  
 뛰고, 계속하여 반대 편  
 으로줄을 돌린다.

③짧은 줄 아홉 사람  
 뛰기

한 사람의 차례 차례  
 줄 안으로 뛰어 들어,  
 그림과 같이 몸을 꼭꼭  
 붙이어 마름 모양으로  
 한어서고, 다시 차례 차  
 례 한 사람의 나간다.



④세 줄로 일곱이 뛰기

줄이 맞잡고 두르는  
 긴 줄 안으로, 좀 짧은  
 줄을 두 사람이 맞잡고  
 뛰고, 그 안으로 더 짧  
 은 줄을 가진 한 사람이  
 뛰어 들고, 이 세 줄로  
 두르는 줄의 앞과 뒤로  
 각각 줄을 안가진 한  
 사람이 뛰어들어 합  
 께 된다.

⑤긴 줄 엮걸고 짧은  
 줄 맞잡고 뛰기

두개의 맞잡은 긴 줄  
 을 꼭 바로 엮걸어 두르  
 고, 그 안으로 맞잡은  
 짧은 줄과, 혼자 전 더  
 짧은 줄이 뛰어들어 어  
 더가지 방법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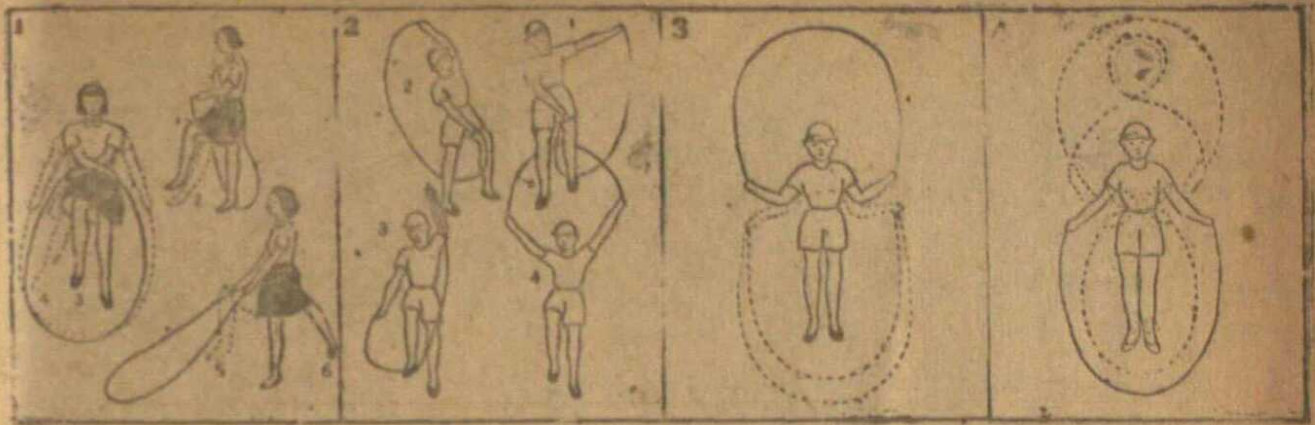
⑥공 던지며 뛰기

맞잡고 두르는 줄 안  
 에서, 줄이 줄을 넘으면  
 서 공을 던지고 받고 환  
 다. 줄이 갈라거나 공을  
 놓치거나 한 사람은, 줄  
 두르며 사람이거나 혹은  
 한 사람과 바꾸게 된다.

⑦오래 뛰기 배기

줄 두르기를 바르든  
 지, 거꾸로든지 미리 작  
 장해 놓고, 어떨이 합  
 뛰기 시작하여 줄이 걸  
 려는물어나고,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 수로써  
 승부를 결정된다.





★ 그 밖에

①관 견고, 무릎 굽혀, 다리 이리 저리 빌리기  
팔을 엮고 두르면서, 무릎을 굽혀, 그 다리를 앞으로 옆으로 뒤로 내어 뻗는다. 순서는 (1) 왼 다리 앞, (2) 오른 다리 앞, (3) 오른 다리 옆, (4) 왼 다리 옆, (5) 왼 다리 뒤, (6) 오른 다리 뒤, (7) 오른 다리 앞.

②몸 들어 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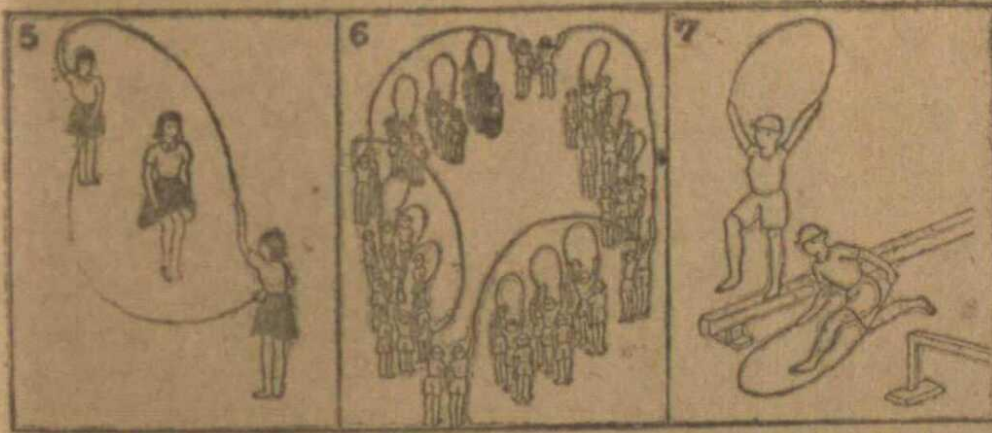
몸 앞에 오는 줄너머로 왼다리를 던져 달고 몸을 왼쪽 뒤로 틀어 제지면서, 왼 팔을 머리 위 오른 쪽으로 펼치면 줄이 저절로 오른 다리에 걸리게 할 것이니, 제때로 제 발을 짚어 몸 앞으로 돌며 나가는 줄의 힘을 따라 한번 거꾸로 두른다. 그 다음엔 오른 다리로 한다.

③팔리 두르기

팔꿈치를 양옆으로 조금 꺾어 올리고, 팔목에 다 힘을 주어 한번 뛰는 동안에 두번이나 세번 두른다. 뛰어 오른 몸은 곳곳히 그림과 같이 무릎을 굽혀서 그림과 같이 모기 쫓개 하여야 된다.

④관 견고 풀이 두번 두르기

한번 뛰는 동안에, 관 견고 줄이 발 밑을 지나고, 팔리 견고 관을 풀어 그 줄이 또 한번 발 밑을 지나게 한다.



⑤두 줄 번갈아 안 두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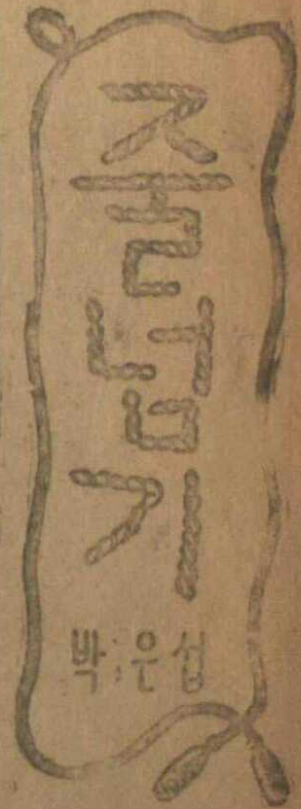
먼저 줄 두르기 연습을 하고 다음에 뛰어 줄기 연습으로 들어간다. 두 줄은 한번 갈아 뛰 아다가 되게 돌려야 된다. 뛰어 줄 때는 뛰는 이리 서있는 쪽의 줄만 바타 모양의 경우와 같은 성격으로 하면 된다.

⑥아름답게 폐지어 뛰기

그림과 같은 모양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모양을 이루어서 할 수도 있다.

⑦저칠새 뛰어 넘기 달음질

뛰어 갈 길에 10 미터 이상, 20 미터 이내의 몇 만큼씩 군데 군데 의자나 평갈래 같은 낮은 막대한 물건들을 놓고 한다. 뛰어 넘을 때 줄 넘기를 잘못하는 사람은 몇 번이고 고쳐서 해야 한다.



# 이름 없는 별들 (2)

정 인 택 · 그림 정 현 용

(5)

.....우리는 싸웠도다 빈 주먹  
으로  
너와 나와 다함께 손을 맞  
잡고  
자유종을 울리며 싸웠더  
니라  
자유종을 울리며.....

갑주는 언덕 중턱에 이르자 문  
득 노래를 멈추고 별안간 다시  
살살한 포정을 지으며 가만히 집  
안 동정을 엿보았다.

집을 나온지 한 시간도 못되  
니까, 그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을 리도 없었으나, 모든 것이  
아까와 조금도 다를 없었다.

이제나 저제나 텅 비인 집 같  
이 고요할 뿐이다.

그것이 웬 일인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마음이 놓이  
는 것 같기도 하여 갑주는 갈피  
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  
서 다시 한번,

“자아유종을 울리더.....”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보았으  
나, 역시 다음 대목이 텅 밖에  
까지 나오지는 않았다.

사람들 앞에 이르자, 꼬리를  
치며 후닥닥 복슬이가 내달아

갑주 다리에가 칭칭 감겼다.

그러나 갑주는 머리 한 번 쓰  
다듬어 주는 일 없이, 그대로  
마당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갑주냐?”

부엌 쪽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네에.”

“어디 갔다 언제 오니? 저녁  
두 안먹구?”

“저어.....동무들러구 고기 잡  
으러 갔다 왔어요.”

갑주는 얼른 이렇게 꾸며대고  
는 골방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왜 나는 또 거짓말을 했을까  
?.....갑주는 책상 앞에 턱을  
고이고 앉아, 잠간 이렇게 누우  
쳐 보았다.

산보 갔다 왔다고 바론대로  
말해도 아무 상관 없을 것이었  
다. 아니, 그 보다 더한 것.....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왔다고 바  
론대로 고해도 꾸짖거나 나무래  
거나 할 어머니는 아니었다. 그  
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주 어머  
니 앞에서 나는 가면을 쓰려 하  
나? 갑주는 스스로도 자주 떼  
뚱러진 걸로만 출달음질 치는  
자기 마음을 길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자니  
자연히 마음이 울적해져서 갑주  
는 만물이 얹힌 사람 같이 꼼짝  
도 안하고 어룡이 서리기 시작  
한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유리창 문 너머로 어  
머니가 고개를 내미시며,

“왜 그러구 앉었니? 베고프  
지 않느냐! 어서 저녁 먹어  
라.”

마지 못해 대답하는 뜻이,

“네에.”

갑주는 힘 없이 끄덕이고 일  
어서며,

“아버지 오셨어요?”

반전을 하고 물었다.

“별새 오셨지. 갑주야, 너 어  
디 아프냐?”

“아아노.....”

갑주는 나지막하게 대답하고  
그대로 복도로 나섰다.

(6)

저녁을 먹고 나서 뜰 앞에 놓  
여 있는 동의자에가 걸터앉아,  
갑주는 하염없이 먼 하늘로 시  
선을 달렸다.

월빛은 산 넘어로 바다로 보  
이는 서울 쪽 하늘에는 둥게뚱

게 된 구름덩이가 꿈 같이 떠 있었다.

저 구름 밑에 그건 살던 집이 있으려니……그렇게 생각하니, 갑주는 급사로, 그 쪽을 향하여 달려가 보고 싶어진다.

……어머니!

갑주는 속으로 가만히 불벼보았다.

금방 꽃날이 시큰했다.

아차……눈물이 나올것 같았다. 우는 짓을 누가 보았던 큰 일이다. 갑주는 손에 붙었던 잡지 “소학생”으로 얼른 얼굴을 가리고 책을 읽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나 소용 없었다.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다.

갑주는 얼른 주먹으로 눈물을 닦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다.

갑주는 다시 깊숙히 등의자 속에 몸을 파묻고, 이번엔 정말 잡지를 읽어보리라 마음먹으며, 여기는 인도 어느 깊은 산속 시오니라는 언덕입니다. 해는 머지 않아 땅저미지버하나, 무더움은 좀처럼……”

새로 질리기 시작한 “모오구리”라는 소설을 소리 내어 읽기 시작하였다.

갑주는 아무도 자기 행동을 보는 사람이 없는 줄로만 알고

### 지난달치의 대감 이야기

이 소설의 특징은, 어느 누구 하나 들이 특별한 주인공이 아니라, 수 많은 어린이들이 다 같이 주인공인 데 있는 것이다. 서울 문밖 어느 동네에 사는 어린이들이 개울가에 서 불장난을 하며 천진만만하게 논다. 태진이, 종호, 운봉이, 갑주, ……이들은 다들 소학생이요, 그만도래의 선머슴들이다. 그들이 한바탕 불장난을 하고 노는 어느 여름 밤, 학교 마당에서 영화를 놀리게 되었다. 그들은 불뚱이거너와, 운동회 아이들, 어른들 할 것없이 모두다 구경을 잤었다. 그런데 한참 구경을 하는 도중에 무엇이 탕! 하고, 마치 때포나 터지는 듯한 소리가 일어나더니……

있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던 갑주 아버지가 창 너머로 갑주의 일거일동을 날날이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갑주 아버지는 후우 한숨을 내쉬며 책을 덮었다.

……딱한 자식!

원래는 그렇게 침울한 소년이 아니었다. 침울하기 커녕은 오히려 그 도래의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명랑하고 쾌활한 갑주였다.

그렇던 갑주가 아주 반 소년이 되고 만것은 지금 어머니가 집에 들어온 후 부터였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제모라던가 하는 그런 말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도록 새 어머니도 훌륭한 어머니였다. 그리고 갑주를 정말 사랑했다.

그러나 갑주는 웬일인지 새 어머니를 따르지 않았다. 새 어머니를 따르지 않는다는 그것에 그쳤으면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서 올라온 심정인지, 갑주의 성격이 점점 달라져 가는 것이 탈이었다.

한번 빛나가기 시작한 갑주의 마음은 걸잡을 수가 없었다.

갑주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통말이 없었다. 동무들과 사귀이려 들지 않았다. 종일 혼자 틀어앉아, 책이나 읽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처 없어 거리를 쓰다니기가 일수였다.

어느 서진관 전열창 앞에서 떠날줄을 모르는 갑주를 발견한 갑주 아버지는, 그 전열창 안에서 환장의 사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세상을 떠난 갑주어머니와 똑같은 사람 사진이 전열창 속에 꽂혀 있는 것이었다. 모습도 그랬거니와, 실기하게도 머리 모양이라든가 입은 옷까지도 흡사했다.

그 때 비로소 갑주아버지는 갑주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것이었다.

그러나, 어찌 할 도리는 없었다. 갑주 자신이 깨닫고 돌아서 주기 전에는, 타 일러서 될 일이 아니었다.

그러면서부터 운동부족으로

해서인지 갑주는 몸도 점점 쇠약해 갔다. 물론 학교 성적도 떨어졌다.

나날이 달라가는 갑주의 마음을 흑지 밝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가 하며, 갑주아버지가 선을 근교(가까운 교외)에서도 경치 좋기로 유명한 이 고개 넘어 동네로 이사 온 것은 그러니까 지난 늦은 봄이었다. 환경을 바꿔 주면 갑주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 동무가 없어서 보기에 더욱 침울한 소년인 된 것 같을 뿐이었다.

“우리 엄마 안왔어요?”

별안간 창 밑에서 옥순이 목소리가 들렸다. 갑주 아버지는 고개를 번쩍 들어 창 밖을 내다보고,

“옥순어나?”

입가에 억지로 웃음을 띄어 보였다.

“네, 우리 엄마, 어더 기세요?”

“응, 아마 열병에 제설결. 왜 몇 먹으러 왔니?”

“피어, 아저씨는……”

“그럼 뭘하러 엄마는 찾아댕겨?”

“아버지 오셨으니깐 그렇거 뻐……”

“예, 옥순어!”

“……?”

옥순이는 동그란 눈으로 왜요? 하고 묻는 듯, 말 없이 쳐다보았다.

“엄마 가시래구 밍이다, 갑주 허구 놀다 가거라, 응? 너방 학책 다 했니?”

“안했어요, 모르는 데가 있는 걸……갑주 오빠가 뭐 나허구 놀아 주나, 공부부 안가르쳐 주구……”

“아저씨가 놀아주라구 그럴레 니, 저기 가서 갑주 불러 오너라, 저기 앉아 있지 않나!”

“어더?”

“저기, 저 걸상에……”

어느 틈에 어누었는지, 두어 간통 떨어진 화단 옆에 앉아 있는 갑주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불러 오까요?”

“그래, 불러 오너라.”

단발머리를 내흔들며 달려가는 옥순이 뒷모양을 갑주아버지는 생그때 웃으며 바라다보았다.

## (7)

우물 거에서 원등을 벗고 몸을 씻고 있던 옥순 아버지는 옥순 어머니가 혼자만 들어 오는 것을 보고,

“옥순어?”

하며 물었다.

“갑주네 집에서 논넬디다. 저녁 어적 안잡수셨우?”

“안먹었어!”

“잘 뻐구며, 갑주네 집에서 고기를 사 보냈길래, 몇 점구 먹 봤더니, 늦게 오시기에 난……”

“옥순이나 수지 삼구……”

“백구 나갔다우.”

옥순아버지는 윗몸을 뺀 채로,

“무슨 날이 그렇게 더워, 바람 한점 없구.”

하면서 바루로 올라와, 혼자서 저녁상을 받았다.

“옥련신 자우!”

“술가탁 할구 초는 번, 벌써 돌아떨어졌지 입매 있겠우.”

옥순어머니는 커다란 배를 부들켜 안고, 마루 끝에 와 걸터앉으며 가쁜 듯이 후우 숨을 내쉬었다. 내월이 해산 날이었다.

해방 전까지도 끝갈 살던 집안이었다. 그러나 원배 사람이 좋기만한 옥순아버지는, 해방 후 일본에서 돌아온 어떤 장사치한테 속아, 재산을 훌쩍 까울버버리고는 집 값이 싸대서 이 고개 넘어 동네로 쫓겨 나온 것이다. 이리로 온 후로는 하루도 생활에 또들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물가는 나날이 올라갔고, 생활할 방도는 없었다. 여름 철이라, 쌀값 마자 천원을 뵈선 귀어넘은 모름, 짐팔로 그날 살기가 어버웠다.

옥순아버지가 벌어들이는 돈만으로는 네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만삭 가까운 배를 부들켜 안고 옥순어머니가 이웃집 부엌 일과 말대 같은 것을 거들어 수어가며, 거기서 톱툰이 셀거는 것으로 살림

을 보태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다. 그래서 갈주배 집과도 왕래가 시작 된 것이었다.

마침 갈주배 집 식모가 나간 때이라서, 서로 여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허드렛일이 몸에 익지 않은 옥순어머니에게는 이것은 여간 고역(힘 드는 일)이 아니었다. 옥순어머니는 그래서 늘 요새 얼굴 빛이 좋지 못했다.

유치원 다닐 때까지도 귀하게 자라던 것이, 요새 와서 천더구니가 되어 남의 임신여검을 받아가며 동생 업어 주기에 바쁜 옥순이도 측은했지만, 내월이 산월이라는데, 아무 준비도 못했을 뿐 아니라, 고된 일에 시달리는 옥순어머니도 불쌍하다고— 옥순아버지는 그것을 생각하니, 오직 기가 막힐 따름이

……될대두 되겠지.

늘 하는 버릇으로, 그렇게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며,

“옥순이 가서 데려 오지그래.”

“아직 놀라구 뉘 두시구려.”

“그래두, 어뚱논네……”

그렇게 말하고 마악 술가탁을 놓으며 할 즈음이었다.

합교 있는 쪽에서 벌안간, 탕! 하고 천지를 흔들 듯한 요란스런 폭음이 들려 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옥순아버지는 맨발바닥으로 마당으로 뛰어내려, 소리 난 쪽 하늘을 쳐다보았다.

시뻘건 불길이 불끈 마쳐 무슨 폭포나 까구로 새워 놓은 듯한 기세로 증천을 향하여 걸걸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 제2장 폭풍 속의 아이들

### (1)

“요거, 한 수만 물러 뉘, 이 사람아!”

“안 되지, 처음 약속어 니까……”

“아무리 약속이라지만……이 사람아, 이게 죽으면 불판야.”

“사정 보다 내게 죽제!”

종호아버지는 어디까지나 강



경한 때였다. 열매 안 된다고 고개를 내저으며 천천히 담배를 입에 물고 성향을 그어 대었다.

태진아버지도 양보할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좀 치사하기는 하지만, 잘못 놓은 그 돌 한 개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야 할 참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 돌 것도 없이 바둑은 지는 판이다.

“사람이 그래 그렇게 뻔뻔하담, 그거 천 수 풀려 달라는 데……”

“내기 바둑에 몰르다니……안 될 말이지.”

“자아, 그러지 말구……”

태진아버지는 내미는 손을,  
“안 된대두 그래.”

그러면서 종호아버지가 가로막으며 바둑판을 열싸안듯 하였을 때였다. 요란스런 폭음은 여기까지도 또렷이 들려왔던 것이다.

보통 종소리쯤이라면 눈도 저 들며 보지 않는 그들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바둑이 중하다 하더라도, 이 굉장한 폭음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아!”

종호아버지가 눈이 뚱그래지며, 열거주춤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리쳤다.

“글세……”

태진아버지는 그래도 안차게 바둑판 앞을 떠나지 않았으나, 그러나, 역시 고개만은 창 쪽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집안 식구들이 제각기 밖으로 풀려나가더니, 다음엔 떠들석하

는 소리가 사방에서 와글와글 들끓었고, 놀란 발자욱 소리가 이 풀목 저 풀목에서 우당탕탕 뛰쳐나왔다.

“뿔들이야!”

어전히 태연하게 바둑판 앞에 앉은 채, 태진아버지가 물었다.

“심상치 않은데……가만 있어 내 좀 나가 보구 오지.”

종호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고 마약 마루 끝까지 나왔을 때였다.

종호어머니가 새파랗게 절린 얼굴로 후다닥 뛰쳐들어오며,

“아이구, 이 일을 어찌나, 어서, 좀 학교에 가 봐요, 학교에……”

손 발을 대충 없이 내젓는 품이 거의 정신을 잃은 사람 같았다.

“무, 무슨 일야, 학교엔 왜?”

종호어머니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하, 학, 교에서……”

이렇게 쨌쨌 매는 판에,

“태진아버지, 태진아버지, 여기 계시우?”

하면서 이번엔 태진어머니가 미친 사람 같이 서두르며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응, 여겼서, 왜그래?”

“아, 이 난리 난것두 모르구, 바둑이 다 뛰우, 태진이야, 태진이야……”

“태진이가 어쨌단 말야?”

“태진이가……” 라는 말에는 그렇게 안찬 태진아버지도 경중을 한듯이 바둑판 앞에서 뛰쳐 일어났다.

“학교엔, 구경인지 뭔지 갔는데……”

채 말이 끝나기 전에, 종호어머니가 가로채었다.

“우리 종호두, 종호두 갔다우 어서들 학교루 가십시다. 빨리 가서……대리 와야……”

“학교에서 대체 어쨌단 말야?”

갑갑한 듯이 종호아버지가 소리쳤다.

“무엇이 더졌다나……아이구, 답답해라, 좀 나와 보시구려, 불길이 하늘까지 올랐구, 원통 동내가 발각 뛰걸렸는데……”

과연 그랬다. 온 동네가 순식간에 발각 뛰걸리고 말은 것이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아우성소리가 벌떡 울리는 것 같기도 했다.

“불길이……”

거우 사태가 대단히 급하게 된 줄 짐작한 종호아버지는,

“어보, 빨리 갑시다. 왜 얼른 얘기를 못허구……”

신발도 신는중 마는중, 뚱뚱 걸이 밖으로 내달으며,

“대체, 그까진 구경들은 왜 보내는 거야.”

경황 없는 중에도 편잔 주는 것 만은 잊지 않았다.

## (2)

탕! 하는 폭음을 제일 먼저 들은 이는 윤봉아버지였다.

바람도 쏘일겸, 구경이나 가겠다고, 어슬렁어슬렁 마약 돌다리를 건너버린 순간이었다.

눈 앞에 불이 반짝하는 듯 하더니 곧 뛰이어 캐가 먹먹하도록 커다란 폭음이 들려왔다.

윤봉아버지는 순간 그 폭음이 학교 마당 근처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직각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놀라 아우성울리며 불길을 것이었다.

그 틈에 끼어, 나이 어린 윤봉이와 회봉이는 갈망갈망하다가, 딱딱 자빠지는 날에는……

거기까지 생각한 윤봉아버지는 머리 끝이 꾸뻑하고, 온몸에 소름이 쭉 끼쳐도록 놀랐다.

주춤하고 걸음을 멈춘 후, 잠깐 멍하니 서있다가, 다음 순간,

“이크, 이거 큰일 났다?”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학교 쪽을 향하여, 셋골목을 뚫고 달음질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사이에도, 이 골목저 골목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앞서거나 뒤서거나, 학교를 향하여 뛰여가는 패들이 불어나왔다.

좁은 골목을 빠져 큰 길에 나왔을 때에 큰 길까지도 달리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당황한 기색이요, 놀란 얼굴들이다.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늙은이, 젊은이, 아낙네, 아이들 할 것 없이, 온 동네 사람

## ☆ 성공의 비결 (秘訣) ☆

아메리카 뉴우루시 어느 변화한 사무실 한 구석에서,

“무엇이든 나에게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까?” 하고 눈을 반짝이고 있는 한 소년 급사가 있었습니다. 출납계(出納係) 사람이 현금을 세이고 있으면 이 소년은 재빠르게 달려와서,

“나도 거물계 하여 주십시오. 네?” 열심히 간청하는 것이었고,

“예, 저기 가서 이 전표(傳票)를 가져 오너라”이 같이 뒷사람에게 명령을 받으면 기쁘게 뛰여가 얼른 가져올 뿐 아니라,

“이왕 하는집에 주관도 거물계 하여 주십시오.” 정성껏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열심히었고 성실한 이 소년에 감복한 회계(會計)를 맡아 보는 사람은, 틈틈이 이 소년에게 정부(帳簿) 기입(記入) 하는 법이며, 회계의 원리(原理) 등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년이 지난 후에는, 일이 몹시 바쁜 때나 그 자리가 비었을 때는, 훌륭하게 대리(代理)를 보게끔 되었습니다.

그 후 회계 보는 사람이 뒷자리로 영전(榮轉)하게 되어, 그 뒷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게 될 때, 그는 이 소년을

추천한 것입니다. 만일을 염려하는 여러 사람에게, 그는,

“염려없습니다. 내가 하던 일은 이 소년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아너 나보다도 더 익숙하고 자세할는지도 모르지요.”

이 같이 섹섹하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그의 말은 꼭 맞았습니다. 여러 분!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소년이야말로 저 유명한 미국의 뉴우루시 스타만아드 석유회사 사장 벵트포오드의 소년시때였던 것입니다. 그는 만년(晩年),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秘訣)을 물으면, 조용히 가벼운 웃음을 얼굴에 띄우고 대답합니다.

“명령받은 일은 무엇이든 할 것 명랑하고 기쁘게 그러고 열심히 하여야 한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엔, 또 무슨 다른 일이 있나 찾을 것이다. 일을 얼마나 하였는지 그 양(量)과 질(質)을 논할 것이지, 절대로 시간을 논하지 말고 무슨 일은 정해진 시간 안에 끝마치도록 노력할 것이지 과한 뒤까지 우물우물 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이 많아서 남았을 때에는 다르다.”

들이 전부 풀려온듯, 마약 소낙  
비가 내린 후, 좁은 개울물이  
소용도리치며 흘러내려가는양,  
사람의 흐름이 학교 쪽으로, 학  
교 쪽으로 쏠려내려가고 있었다.

그 흐름을 헤치고 거꾸로 치  
켜올라가는 청년단원들.

군데군데 매물 지어 얼 빠진사  
람 같이 모여서 수군대는 깨들.

아직 그 폭음의 정체가 무엇  
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눌  
린 가슴과 궁금찬 생각에 허둥

지둥 달릴 뿐, 대체 무슨 영문  
일지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  
에 채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있  
는 것이다.

여기서, 저기서, 터져나오는  
사람의 흐름은, 이윽고 학교 운  
동장 주위를 에워싸고 다가가기  
시작하였다.

학교 마당에 모였던 군중들은  
동네 사람들보다도 더 큰 놀람  
과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와아  
이유 없이 고향을 저르며, 무엇

에 쫓기듯, 동네를 향하여 쫓달  
이 물러드는 때와 마주치고 말  
았던 것이다.

사람의 흐름과 흐름이, 골목  
에서 개울에서, 모래사장에서,  
풀밭에서, 맞부딪고, 어울리고,  
밀고, 휘어잡고,

“아이구구.....”

“사람 살랴우.”

“아야야.....”

다음엔 이런 외마뼀소리, 부  
르짖음, 그런 것까지 섞어, 고





소가로 평화하던 고개 넘어 동  
네 전부가, 먼 길 걸어 놓은 곳  
수라경을 이루고 밟았던 것이  
다.

“운봉아아!”

문 귀여어,

“희봉아아!”

목이 락 갈아얇은 운봉 아버지  
목소리가 처참했다. 악을 써서  
쉬인 목소리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 그런 소리 밖에 내지 못  
하는 때문일 것이었다.



### ★소금 산과 소금 굴★

아세아주 서쪽에 파페스타나  
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던 곳  
으로 유명 합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소금산이란 아주 이상  
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는  
약 100미터로, 그리 높을  
같은 아니지만 적경 70리나  
되는 넓은 산이 온통 소금덩이  
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  
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금이라 하면 우리 나라에  
서는, 바닷물을 뜨거운 햇볕에  
말려든지, 솥에 넣고 불을 때  
서 졸여든지 해서 만들지만 외  
국에는 큰 바닷덩이가 되어 있  
는가, 산 하나가 모두 소금으  
로 되어 있는 것이 적지않습니  
다. 이 산도 그런 것으로, 산  
꼭대기에는 소금 바위가 몇개

든지 나뉘어 우뚝 솟은 람포양  
솟아 있어, 아침 햇 빛이 비쳐  
어 반짝반짝 빛나는 광경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리고 소금으로 비탈이 되어 있  
는 곳이 있는데 그 밑을걸으면  
소금이 발에 부서져 사각 사각  
하고, 귀엽고 아름다운 기묘  
(奇妙)한 소리를 낸다고 합  
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이보다도 더욱이상하  
고도 놀라운 것은, 소금 굴입  
니다. 가늘고도 긴 기왓갈 모  
양된 이 굴이, 몇 리(里)까지  
모를 지경으로 깊이 속까지 걸  
게 뚫려 있는데, 이 굴속은 태  
리석으로 장식한 것과 같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 굴 천장에서 숨기 때문  
에 소금이 녹아 그것이 점점 돌  
리 내려 고드름 모양 또는 기  
다팔고 하얀 실을 늘어뜨린 것  
같이, 온 천장을 뒤덮고 있음  
니다. 길 것은 2미터부터 3  
미터 가량이나 되며, 만지면  
바삭하고 붙어집니다. 굴 밑은  
촉촉한 소금이 모두 깔려 있으  
므로, 어기를 걸어 가는 것은  
매단리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  
다. 그런데다가 모두 소금이기  
때문에, 조금 손에 묻은 것을  
일에 매기만 하여도 자서 이상  
할 기분이 되므로, 이 속에  
오래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다  
고 합니다.

사람의 호쁨은 이리 물렸다,  
저리 물렸다, 그래도 그칠 줄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얼크러지  
고, 풀리고 하였다.

(계속)

대관절 그처럼 온 동비를 즐  
래 준 폭음, 그리고 그 무시무  
시한 불길은 무엇이며 무엇 때  
문에 일어난 것인가? 참으로  
소름이 끼치는 일이다. 다음달  
치를 기다리자! (편집부)



우리 일행이 신무성(神武城) (표고 1313메타)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경. 7월25일의 여름철이라 아직 해가 지기까지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나 마침 날은 침울하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라 검은 숲이 둘러 쌓인 산중은 벌써 날이 저드는 빛이 짙었다. 산림을 개발하는 도르라고도 하고 또 국경 경비도르라고도 하는 신작로가 여기서 국경을 넘어 단주의 백두산 넘어 안도현(安圖縣)으로 통하는 곳이다. 길가 한 옆에는 재목을 찍어내던 인부들이 묵던 움막집이 한채 있었으나 우리 일행이 들어 자기는 너머도 좁고 누추해서 부득이 일부는 길가에 천막을 치고 자게 되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천막을 치고 또 한편으로는 저녁 준비를 하기에 바빴다. 어느덧 해는 지고 어둠이 찾아오니, 사람 안 사는 깊은 산중의 비 오는 밤은 본래가 으스스한데다가 산중의 야숙(野宿)이 처음이 되고 보니 어두운 밤이 더 싫었다. 저녁 짓는 불길만이 숲 사이로 환하니 피어 오르는 것이 어딘가 사람이 의지할 곳 같은 정다운 느낌을 주었다. 대고적 사람들이 산중에서 사냥

이나 해먹고 살면서 어두운 밤을 맞이하는 불안스러운 살림이 또한 이렇지나 앉았는가 싶었다. 저녁밥은 된장국 한 그릇으로 찻불을 켜놓고, 먹는데 마는데 강 치르고 천막에 들어가니 아홉시반. 밤은 완전히 어두웠는데 비는 그대로 계속하고 천막 속은 축축하여 예비했던 고무방석 등으로 자리를 작만하고 “쓸립핑·뵙”(방수포로 쌀자루 같이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 자게 된 것인데 쳐올 것은 특이 새털을 넣어서 만든다)에 들어 갔으나 땅이 습하여 좀처럼 자기 힘들었다.

☆

새벽에 눈이 피어니 빗발은 좀더 굵어지고, 비도 아직 개일상 싶지 않아 이날의 행동은 일단 보류하고, 일행이 하루 더 신무성에서 묵는데선 식량 등 중요한 짐을 앞으로 더 나르기로 하였다. 언제나 등산에서 어려운 것의 하나는 짐을 꾸리는 것과 짐을 나르는 것, 즉 수송(輸送)이란 것이다. 식량이며 천막 기타 산중에서 공동으로 써야 하는 장비(裝備)와 그 수송을 잘하고 못하는데 등산대의 행동이 소기의 목

적을 달하느냐 못하느냐의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 일행의 형편으로도 이곳 신무성에서부터는 완전히 전 대원과 인부의 힘만으로 짐을 나르게 되는데, 천지까지 왕복 일주일간의 행장을 잘 나누어, 일부는 다시 돌아올때 쓸 것을 남겨 두고, 앞으로 소용되는 것만을, 그러나 산상에서 부족 없도록 꾸려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오후에 가서 비는 개이기 시작하여 저녁 때에는 서북풍이 성그럽게 불며 온하늘이 유평 같이 맑게 개이었다. 그때 기상반(氣象班)에서는 이날 밤은 기온(氣溫)이 상당히 내릴 터이니, 밤에 자는데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가 있었다. 아직 땅은 마르지 않고, 밤에 다시 천막에서 잘 생각을 하니 어떤 준비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았다. 산중에서 야숙을 하는데 쓰는 자리로는 개(犬)가죽을 깔고 자는 것이 심상이나 그 준비가 없기 때문에 전에 들었던 대로 나는 커다란 아릅드리(白樺)껍질을 구해서 이것을 돛자리 삼아 깔고 자기로 했다. 빗나무 껍질은 얇은 종이장 같은 껍질이 수십겹으로 된 것이어서 땅의 습기가 결코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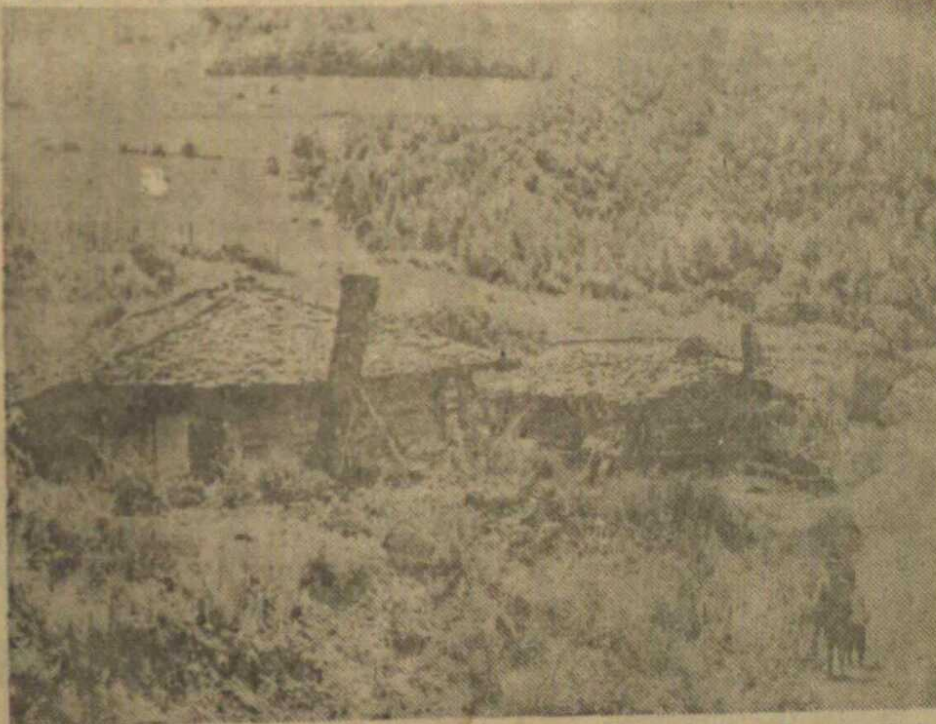
그러고 또한 방법으로는 젖은 땅에 불을 피워 땅을 말리운 다음에 그 위에 천막을 치는 것도 한 방법이였다. 그렇게 해서 천막을 쳤더니 천막 속은 훈훈하여 온물방 같고, 깔고 자는 밑바닥 자리도 습기가 배이지 않아서 전히 잘 수가 있었다. 그러나 새벽에

는 추이가 상당히 심해서 잠을 이루울 수가 없어 깨었더니, 천박 위에는 서리가 하얗게 덮여 있었다. 과연 고산지대의 천기가 얼마나 급변하는가를 알 수가 있었다. 기상관의 관측에 의하면 이날 아침 6시 현재가 0도(度) 5분(分)이라고 했다. 겨우 얼음이 얼지 않을 정도이었다. 아침 세수하고 식사준비를 하는데 계을붙은, 전날보다도 더 차가워 손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따한 기후의 급변이 건강상에 영향을 하는 바 크기 때문에 등산 때는 기후와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이날 낮에는 날이 상당히 더워져 기온은 28도(度)까지 올라 갔다. 즉 하루 동안에 28도나 기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겨울과 여름을 동시에 체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백두산의 경관 기온은 아침이면 최저 4-5도에서 5-6도이고 최고가 26-27도이었다.

☆

이날 행정은 신무성에서 무두봉(無頭峰)까지 약 삼십여리의 짙은 원시림(原始林)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에도 정경한 거목의 울창한 숲사이로 많이 지나왔지만, 신무성

까지는 그래도 사람의 자취가 찾아오는 곳이었다. 목재를 벌채하려고 오는 사람이 일년에 몇차례씩 통과하는 곳이었으나, 신무성에서 무두봉, 그리고 다시 그 앞으로는 특별한 등산객이나 사냥꾼 아니고는 다니는 이가 없는 밀림지대로, 그야말로 짐승이 아니고는 발을 붙이지 않는 곳이라고 할 곳이다. 나무는 벗나무나 사수나무 등 활엽수(闊葉樹)도 있으나 대부분은 벗아름식 되는 낙엽송(落葉松), 감은비, 분비, 잣나무, 잣나무 등의 침엽수(針葉樹)로 나무 가지가 서로 얽



사건은 화전민(火田民)의 집고 도영 커어 하늘이 안보일만큼 우거져 있는가하면, 또 땅에는 풀숲이 우거진 가운데 여기 저기 나무가 자랄 때로 자라서 썩어 버린 것이 수두룩하여, 일찍이 사람의 도끼나 톱날이 들어 보지 못한 천고의 처녀림(處女林)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밀림 속에서

또 밀림 속으로 숲을 헤치고 오르려같은 길을 찾아 서북쪽으로 산길을 가기 6-7시간 만에, 숲도 깊지 않고 나무 키도 나지 못한 둔덕 위에 올라섰다. 사방이 툭 터지고 바로 서북 쪽으로는 나무 한그루 보이지 않는 백두산의 웅장한 봉우리가 우러러 보이고, 바로 발 밑으로 동, 남, 서 쪽으로는 끝 없는 산림이 잇대어 있다. 이것이 이른바 백두산목 일 대의 수해(樹海)인 것이었다. 잇비듬히 벌어진 나간 뿔발은 마치 평지의 잔디밭을 바라보는 듯, 언덕과 골짜기가 꿈틀거리

고 있는 것은 대개의 물결 같아서 과연 산상의 바다— 숲으로 푸어진 “수해”란 이름을 붙인 것도 극히 적절 하다고 생각되었다. 여기가 무두봉, 표고 1900에타, 우리는 바로 그 밑 계울 기슭에서 천막을 치기로 했다. 그런데 위에서 또 다시 설명 하겠지만 무두봉위로 흐르는 한 줄기의 계울물이 동쪽으로 돌아 빠진 것이 곧 두만강(豆滿江)의 상류인 것이다. 우리는 두만강 원류(源流)의 물 소리를 들으며, 천막 속에 들어가 잠들기 전 흥겨운 노래와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는중, 깊은 숲 위에 둥근 달이 솟았다.

(45페이지에 계속)

# 애독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인·소설가·화가·좌담

여러분 어린이를 위하여, 특히 20만 “소학생” 독자를 위하여, 혹은 노래를 지어주시고, 혹은 소설과 동화를 써 주시고, 삽화와 만화를 그려 주시는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여러가지 재미있고 유익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지상을 통하여서만 여러분이 좋아하시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 기회가 많지 않을 뿐더러, 선생님들의 사진을 대하는 것도 처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런 만화는, 김의환 선생님이 앉은 자리에서 그런 것입니다.

때는 8월 그름·곳은 아현 응접실 (편 집부)



## 만화와 소설

심은정 “소학생”잡지를 통해서 가장 널리 알려지신 여러 선생님들이 이처럼 한 자리에 모인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조풍연 요새 어린이들을 보면, 만화보다도 소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의 자제들은...

김규택 만화는 언제 싫증이 난 모양야,

정현웅 우리집 애도 그렇더군. 그리고 잡지를 갖다 주면, 먼저 소설부터 읽고 나서 다른 걸 보던데.

조풍연 만화에서 소설로 어

린이들의 취미가 바뀌었다면 그 까닭이 있을 텐데...

김규택 일제 때는 우리글을 모르다가, 우리글을 배워 보니까 알기 쉬워서, 우리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흥미가 나는 데다가, 동화나 소설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자꾸 읽게 되는 거겠지.

정인택 그 말이 옳아. 처음에 만화를 많이 보게 된 것은 우리글의 실력이 모자라니까 긴 것을 감당할 못하다가 차차 글을 깨치는 대로 긴 것을 읽게 된 게야, 왜 어른들도 해방 직후에는 시집 같은 책을

[사진 설명] 왼쪽줄 위로부터—김규택선생, 정현웅선생, 이성포선생, 조병덕선생. 오른쪽줄 위로부터—정인택선생, 윤석중선생, 박영중선생, 김의환선생.



많이 사 보지 않았나?

조 풍연 짧은 동안에 이처럼 실  
력이 늘은 것은 참 기쁜 현상  
이군요.

정 인택 우리같이 깨우치기 쉬  
운 관계지.

김 규택 쉽고말고, 점의 삼학년  
다니는 놈은, 오학년 다니는  
제 형의 교과서도 어렵지 않  
게 읽는 걸 보면 확실히 글이  
쉬운 덕이야.

조 풍연 한자를 쉬지 않은 것도  
관계가 클까?

김 규택 그야 물론 그 관계가  
클걸.

### 좋은 소설이 나오는 때문

정 현웅 지금 얘기를 같으면,  
글을 다 깨우친 뒤에는 만화  
같은 건 거들며 보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이 되는데, 반드  
시 그렇지는 않아. 만화도 좋  
고 재미만 있으면 독자가 일  
마든지 있는 거야. 나는 소설  
을 좋아하는 까닭의 하나로

### ★ 나오신 선생님들 ★

화 가·김 규택

소설가·정 인택

시 인·박 영중

화 가·김 의환

화 가·정 현웅

소설가·이 성표

화 가·조 병택

(아현쪽에서)

윤 석중

조 풍연

심 은정

좋은 소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사실 해방  
전이나 해방 직후에는 좋은  
소년소설이 없었지. 그러다가  
정 인택씨 같은 훌륭한 소설  
을 쓰는 이가 자주 나와서 독  
자들을 많이 끄는 관계가 커.  
정 인택 너무 추키지 말어, (웃  
음 소리)

심 은정 소년소설로는 해방 후  
정 인택씨의 "봄의 노래"가  
처음이지요?

정 인택 그럴 리가 있다구.  
심 은정 어쨌든 소년소설을 내  
군에서 써서 우리 "소학생"에  
게 보내지게 된 동기는 무엇  
입니까?

정 인택 그건 발표하기 거북합

니다.  
심 은정 그 "봄의 노래"를 "소

(조 풍연선생)



(심 은정선생)



학생"에 실자 독자물이 굉장  
히 좋아했지요.

정 인택 나도 한 3회로 끝막으  
려던 것이 어떻게 6회까지 나  
아갔어.

### 소설이 좋으면 삽 화도 좋아진다

조 풍연 소설의 삽화를 그리자  
면, 소설은 다 읽겠지.



(정 인택선생)

정 현웅 그야 물론 다 읽지.  
조 풍연 어때요. 재미가 있음더  
까?

김 의환 읽어서 내용이 재미있  
으면 그림 그려기도 신이 나  
지.

김 규택 소설을 정성껏 쓴 것을  
보면 그림도 정성껏 그리게  
돼.

정 현웅 재미있는 소설은 삽화  
도 더 잘 그려져.

이 성표 그려면 삽화가 잘못 된  
것은 소설이 너털하다는 말이  
되는군.

김 규택 아마 그 쯤 되겠지.  
이 성표 그런 말이 어디있어. 정  
성을 들어 쓴 소설도 막 날려  
그리는데. (웃음 소리)

### 그림도 우리식이 있다

박 영중 해방 전, 한 십년 전에  
정 현웅씨가 어린이들 잡지에  
그린 그림은 꽤 맑고 아름다  
워서, 어느건 동요 자체보다  
도 정서를 잘 나타낸 것이 많  
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으  
니 썬 일일까?

정 현웅 그때는 역시 일본 사  
람의 그림을 본 뜨게 된 것이  
었지만 이제는 그게 싫증이  
났고, 또 우리 나라 어린이들  
구미에 맞는 그림을 그리려니  
까 자연 달라질 수 밖에.

김 의환 나도 동감이야. 우리는  
우리식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박 영중 그럼 그전 그림은 그렇  
지 않단 말인가?

정 현웅 아니, 그렇게 아니라,  
종래것 보다 좀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보려는 습작기라고 볼  
수 있단 말야.

윤 석중 십여년 전에 정 현웅씨  
가 그린 아동 그림은, 실상은



(윤 석중선생)

아동이 좋아하기보다는 어른  
이 더 좋아했지. 그러니까 요  
새 현웅씨가 그리는 그 거칠  
고 색색한 필치는 오히려그



(정 현웅선생)

림이 훨씬 좋아진 증조야.

### 과학에 힘을 써야

김 규택 일제 때는 경제나 정치  
에 백을 쓰지 못했으니까 모  
두 꿈 같은 생활을 즐기었  
지만,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된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  
야 한다는 것을 어른한테서  
듣고, 과학방면에 힘을 더 써  
야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  
니까, 그림도 자연 정확한그  
림을 요구하게 되는 게 아닌  
가 생각해요.

박 영중 우리는 어린이들의 꿈  
의 넓이가 넓을 수록 미래의  
세계가 더 커지며, 미래의 세  
계가 커질 수록 과학에 대해  
서도 널리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소홀히 해서  
는 안 돼.

김 규택 일리 있는 말야.  
정 현웅 아까 윤 석중씨도 말했  
지만 일본의 아동그림은 꿈의  
표현이라도 그건 어른의 구미  
낸 꿈이지 어린이들의 꿈이랄  
수 없잖아?

김 규택 요새 이런 일을 봤어!

경의 아이같이 장난감을 가져도, 기차 하면 동맹이 있고, 바퀴가 제대로 있고한 실물에 가까운 모형이래야지, 그럴지 않고 엉성하게 만든 것을 기차라고 하면, 이게 무슨 기차냐고 동맹이를 킁단 말야 (웃음 소리) 그걸 보더라도 어린이들이 억눌렀던 과학의 눈을 차차 뜨는 게 아닐까?  
**정 인택** 그걸 단순히 과학에 눈을 떴다느니보다, 일제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조 풍연** 소설을 좋아한다고 꼭



(이 성호선생)

자에게 소설만 자꾸 읽히는 것도 생각할 문제예요. 앞으로 과학 교육이 필요한 것이니까, 소설 같이 흥미있는 것으로 국어실력을 길르도록 하고, 과학방면의 좋은 글과 책을 주도록 해야 되지. 독자한테서도 과학기사를 많이 읽어 달라는 요구가 있음니다.

**정 인택** 요새 어린이들은 사실 과학을 좋아하나봐.

**과학 소설이 어떨까?**

**심 은정** 과학기사는 과학자가

써 주어야 하겠는데 과학자들은 소설가나 시인만큼 재미있게 써 주는 분이 적어. 어떻게 하냐, 과학소설 같은 것을 많이 쓸 생각은 없나요?

**이 성표** 앞으로는 소설가도 공부를 해서 과학소설을 쓰도록 해야지.

**박 영중** 소설에 과학이 나온다구 반드시 과학자를 기른다고는 볼 수 업지 않아?

**김 규택** 옛날 모양으로 과학을 통 모르고 지낼 땐 그저 재미있는 내용만 가진 소설이던 뻘지만 앞으로는 역시 과학에 눈을 뜨도록 이끄는 소설이 나와야 할걸.

**박 영중** 그야 물론이지만 내 말은 과학의 이야기 자체로 쓴 소설보다도, 가령 귀리 부인 같이 과학에 대한 적접 기사는 없더라도, 그 책을 읽고 나면 자연 과학자가 되고 싶도록 하는 그런 문학이 필요하단 말야.

**동요나 동시가 향상된 것은?**

**조 풍연** 해방 후, 동요나 동시



(김 규택선생)

는 얼마나 향상되었나요.

**정 인택** 아주 절이 높아졌어. **박 영중** 무엇보다도 큰 비약을 했지.

**윤 석중** 일제 때에는 선생의 눈치를 보아가며 행동을 하던 어린이들이 우리말 우리글을



(박 영중선생)

자유로 하게 되니까 자유로운 속에서 내 맘 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원인이야.

**김 규택** 그러고, 전에야 일어를 안다고 일어로 동요나 시를 쓸 수 있었나?

**윤 석중**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어린이들은 자꾸만 새로운 방향으로 자라 나아가고, 선생님 가운데는 옛날 생각 대로 지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만 말야. 가령 학교에서 그리 칭찬을, 받지 못한 작품이 현상 모집 같은 데서 터럭 당선이 되는 수가 있거든.

**박 영중** 이제 차차 그런 점은 나아져 갈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을 알아 준다는 것이 여간 힘이 드는 일이 아니지.

## 어린이들의 생활과

### 애정

이 성표 과거에 아동 문학을 하는 사람은, 어른문학을 하러다가 단념한 사람이 많았었다.

박영종이  
이성표가  
어른문학을  
하러다가  
단념한  
사람이  
많았었다.

때, 인젠 제대로 아동문학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걸.

박영종 | 그렇구 말구.  
정인택 |

조풍연 외국의 아동문학을 보면, 훌륭한 작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실력있는 대가가 자꾸자꾸 쓰도록 해야.....

정현웅 실력있는 대가라니, 왜 정인택씨나 박영종씨는 실력있는 대가가 아닌가? (웃음소리)

심은정 정인택씨, 소년소설을 쓰니까, 어린이들의 대한 관심이 더 가게 되지 않을까?  
정인택 그야 가지지요. 더군다나 소년들의 주고 받는 이야기 같은데에...

조풍연 윤석중씨 동요에는 아이들의 말이나 그 생활의 특색이 나타나는비.....

윤석중 확실히 주의가 더 가는데다가, 자기 아이를 키워 보니까 더 달라지드군. 가령 전차나 극장 속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나면 전에는 그냥 듣기 싫기만 하더니, 요즘은 저애가 왜 울을까 매우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

김규택 소설이나 동요 뿐이 아니라, 그림에도 역시 어린이들 것만을 전문으로 그리

는 화가가 있어야겠지.

김의환 그러자면 우선 접지 편집하는 이들이 화가의 특색을 알아야 해. "소학생" 편집은 잘 알아주드구먼서도. (웃음소리)

조병덕 그림의 부락이 왔을 때에 보면, 너무 요구가 많아서 계약을 받게 되단 말야, 화가의 재성을 살리는 작품을 한



(조병덕선생)

번 그리고 싶어.

심은정 접지를 꾸미려면 다소

이 쪽에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어.

박영종 아까 석중씨는 동요를

쓰는 것과 어린이에 대한 애정을 관련시켜 말했는데, 난 그렇지 보지 않아. 단지 자기 마음 속의 시성(詩情)을 가지고 동요를 발표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가령 어느 시를 지을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걸 글로 표현하는데 시(詩)로 할까, 동요로 할까 하여, 동요로 한다면 그 표현을 다만 동요의 방식으로 할 뿐이란 말야.

김규택 좀 예기가 어려워졌군. 결국은 석중씨의 동요 쓰는 생활과 영종씨의 동요 쓰는 태도가 다른 거겠지.

박영종 석중씨는 동요를 쓰는 분이고, 나는 동시(童詩)를 쓰는 사람이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만.....

### 모델 이야기

윤석중 그런데 소설의 삽화를 보면, 김의환씨는 김의환씨 얼굴처럼, 김규택씨는 김규택씨의 얼굴처럼, 대개 그리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의 사람을 그리니 거 웬일일까?

김규택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의 얼굴로 알아지기 쉽지...

윤석중 그럼 옹초(김규택씨의 별호)는 밤낮 거울만 들여다 보는게군. (웃음소리)

조풍연 정현웅씨는 예외야. 그림의 얼굴들이 모두 낮고 납작허구.....(웃음소리)

심은정 소설도 대개가 자기



변에 관한 것이 많거든. 우선 정 일태씨의 "이름 없는 별들"의 장면이 인텔씨 사는 정릉리구.....

정 인택 그렇게 함부루 단정하지 받아.....

김 규택 그렇지. 미국을 못 갔으니까 아는 곳이 정릉리열 밖에, (웃음소리)

조 병덕 소설이고 그림이고 잡에 모델이 있으면 쓰고 그리기가 훨씬 나은 것은 사실야.

### 요새 어린이들의 놀음

조 풍연 우리들이 자랄 적과 지금 어린이들이 달타진 점을... 정 현웅 요새 어린이들의 장난은 확실히 우리 어렸을 적과 비슷한 데가 많아. "비사치기" "까치치기" 같은 것이 다시 유행해지는데, 그건 아마 일본 장난감이 없어진 관계가 아닌가 싶드구먼.

정 인택 일본식인 유희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대신 나오지 않으니까 자연 옛날 것으



(조 풍연선생)

로 되풀아 가는 게지. 정 현웅 그리고 시국색을 띠운 피스를 장난이 꽤 유행해. 정 인택 워낙 친만한 장난이지. 정 인택 군대 장난도 꽤 놀았어. 가령 무슨 소령이니 중령이니 학교를 놀다가 어느 틈에 승급을 하여, 소령이 중령이 되



(심 은정선생)

고, 중령이 대령이 되고 하던 때.

이 성표 한가지 특색은, 병졸보다도 장교가 더 많은 거야. (웃음소리)

심 은정 언극 놀음들도 잘 하지?

이 성표 그것두 대유행야.

### 얼마나 애들 쓰나

조 풍연 일전에 정 일태씨는 두 군대 소설을 대느라구 닷셋밤을 썼다가 펑까지 났는데, 그렇게 고생을 해야만 소설이 되어서야 어떻게 허우. 정 인택 다 재주가 부족한 탓이지.

심 은정 소설 쓰는 때는 결국 용어가 까다롭겠지.

이 성표 말 쓰기가 어려워, 어른과 달라서 어린이들이 쓰는 거니까.

정 현웅 그렇지 않아, 일상 용어 쓴 것이면 어른이 읽을 수 있는 건 거의 읽는가봐, 우리두 어더 모르는 말 하나 하나를 옥편을 찾아 가며 읽었나?

정 인택 그거야 정도문제지, 저학년이야 어더.....

정 현웅 저학년이야 어더 소년소설을 읽나, 그래도 소년소설 하면 벌써 급이 높은 거니까.

이 성표 다소 어렵긴 하지만 꼭 그 말을 써야만 할 말을 편집

하는 어는 줄여서 써달라는 수가 있는데.....그건 좀.....

박 영종 전의 "소년 삼국지"를 어린이들이 많이 읽었나? 상당히 어렵습디다.

심 은정 많이들 읽구말구, 중년 하나까 더 계속해 달라커니, 책으로 내 달라커니 독자한테서 투서가 많이 들어왔어요. 김 규택 소년 소설이라면 역시 되도록 쉬운 말을 가려 써야 할 거야.

이 성표 아니 그게 말아야, 쉽게 쓸 수 있는데 어렵게 쓰자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써야만 멋있게 글이 내려 갈 독특한 말이 있다면, 이걸 멋을 죽여 가며 풀어 쓸 것은 없단 말이지.

정 인택 내용이 쉬우면 표현하는 말도 따라서 쉽게 될 것이니까, 먼저 내용이 결정할 문제야.

정 현웅 참 국민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읽을 것은 도모지 없나 싶이 하드군먼.

박 영종 아니, 오히려 중학교 저학년이 더 급하지.

정 인택 어느 것이 급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어서들 많이들 지어서 읽혀야 하겠어.

심 은정 아무쪼록 어린이들은 위하여 특히 "소학생" 독자를 위하여 (웃음소리) 많이 애 써 주십시오. 어려문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



(김 이환선생)



★ 모험소설 ★

# 모오구리 ②

【정글의 소년왕】

작은 돌번안 • 김기창 그림

## 암소와 바꾸다

늑대의 회의에는 늑대만이 참가할 수 있었으나, 단 하나 다른 짐승이지만 참가할 수 있는

것은 발루라는 곰이었습니다. 늑대 새끼들은 이 발루에게서 정글의 법률을 배우는 터입니다. 고동색 털빛을 한 커다란 늑대는 곰 발루는 나무열매나, 벌통의 꿀을 먹고만 지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갔다 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발루가 앞발을 들고 일어서서 높직한 목소리로 말하였습

니다.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내가 변호 하겠소이다. 무릇 사람의 아이는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소. 나는 말 재주가 없

지만, 나는 거짓말도 할 줄 모르오. 우리들 속에 섞여 뛰여 놀도록 하시오. 다른 아이들과 동무가 되도록 하시오. 내가 다 가르쳐 줄터이오.”

이 말을 듣자 아케라는, “그러면 다른 이는 변호하지 않겠는가? 자, 발루가 변호를 한다. 발루는 우리 어린이

들을 가르쳐 주는 선생이다. 발루 말고 다른 변호인은 없는가?”

하였습니다. 어 때에 검은 그림자가 털석 하고 그 동구러미가

순내도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점점 포범 바기라였습니다. 온 곰이 재까만데 포범의 얼룩점은 마치 비단이 물에 얼룩진 것 같이 박혀있었습니다. 이 바기라를 모르는 늑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함부로 가로막고 지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그런고 하면, 그는 다바키와 같이 추근추근하며, 마구 자란 물소처럼 대담하고, 상처 받은 코끼리처럼 사나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반면에 바기라는 마치 나무에서 흘러 떨어지는 꿀물처럼 달콤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털은 솜과 같이 부드러웠습니다.

“모오구리”에 나오는

### 짐승 이름

아케라.....통령늑대  
사·칸.....모오구리의 부  
모를 잡아먹으려던 범  
다바키.....갈사한 송냥이

발 루.....모오구리의 선생  
비기라.....모오구리의 뒤  
를 보여주는 포범  
카 아.....구멍이  
린.....소리개  
하 티.....코끼리  
망.....박쥐

바기라는 품고 날카로운 소리로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제타어, 그리고 자유로운 택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집회에는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은, 새로 생긴 아이에 관해서 죽일 것까지 없다는 정도의 의심이 들을 적에는, 그 목숨을 값을 쳐서 살 수 있는 것이 정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누구 짓은 받고 누구 짓은 안 받는다라는 조목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소! 그렇소!”

젊은 늑대들이 아우성을 쳐서 이에 응했습니다.

### 지난달치의 대감 이야기

인도나타 깊은 산속, 시오 너라는 언덕에 사는 늑대 들에는 사람의 어린애가 하나 들어와 늑대새끼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 아이는 나뭇군의 아들인데, 나뭇군이 산에 들어와 나무를 하다가 샤·칸이라는 범에게 습격을 받아 도망을 가고, 그때 데리고 온 아이를 그대로 두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샤·칸이 모닥불에 발을 데워, 절룩거리며 어른을 쫓아간 동안에, 아버늑대가 어린아이를

물고 제 굴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늑대 내의는 이 어린아이를 제 새끼와 함께 기르기로 하고, 이름을 모오 구리라고 지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어른을 놓친 샤·칸이 돌아와서, 어린아이를 늑대에게 빼앗긴 것을 알자, 그 아이를 제게 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나 늑대는 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 사건은, 정글의 법칙에 쫓아서 재판관을 열기에 이르렀습니다.

“바기라 말이 옳소. 그 아이는 값을 쳐르고 사게 마련이

요. 그것이 법칙기요.”

“나는 여기서 재건을 할 권리



가 없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승낙을 받고 말하  
고 싶습니다.”

“어디 말해 보시오.”

“어디 들어 봅시다.”

이렇게들 여러 늑대가 떠돌  
어였습니다.

“빨가숭이 아이를 죽이는 것  
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럴  
뿐더러, 이 아이가 요담에 커  
지면 여러분의 큰 위안거리  
가 될 것입니다. 발루가 저  
애를 위해서 변호합니다. 자,  
법원에 쫓아서 저 사람의 아  
이를 여러분이 받아 들인다  
면 나는 발루 말에다가 암소  
한마리를 걸드리어 저 아이  
를 변호하고 싶습니다. 반 마  
일도 안 떨어진 곳에 새로 사  
냥한 암소가 있습니다. 어떻  
습니까? 들어 주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모두들 제마다  
떠들어 대서 한동안 매우 시끄  
렷더니,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  
다,

“그것 근사한 말이 아닌가?

저런 아이는 겨울엔 얼어 죽  
고, 여름엔 타서 죽어. 빨가  
숭이 개구락지 (사람의아이들말함)  
가 우리들을 해칠 수가 있는  
가 말어다. 무리들과 같이 뛰  
어다니게 하세나. 암소는 어  
디 있오? 바기라, 우리가 받  
아 들이겠습니다.”

그러자 아케라도 굵은 목소  
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잘 보아 두게, 저 아이  
얼굴을!”

이런 것은 상관 없다는 듯이  
모오구리는 들맹이를 던지며 굴  
리며 저 혼자 즐거워하고 있었습  
니다. 그리고 늑대들이 하나 하  
나 와서 저를 푹푹히 보고 가는  
것도 통 모르고 있었습니다. 드  
디어 나중에 그들은 다 언덕을  
내려서 암소를 먹으러 갔습니  
다. 그리고 아케라와 바기라와  
발루와 모오구리의 집 늑대만  
은 남아 있었습니다. 샤•칸은  
그 때까지 으르렁대고 있었습  
니다. 말할 것도 없이 모오구리  
를 잡아 먹지 못한 것이 원통하

고 분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  
다.

“싫것, 싫것 깃어라.”

하고 바기라가 말했습니다.

“암만 깃어 보러드나, 인제 두  
고보지? 이 빨가숭이 아이가  
너에게 어떻게 하나.”

아케라가 맛장구를 쳤습니  
다.

“오늘 일은 아주 질 뻔어. 저  
애도 사람인 이상 꺾약을 거  
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움  
이 될 거요.”

“도움이 되다마다. 자네도 언  
제까지나 우리를 통솔 한다고  
는 생각지 않을 것이니까.”

바기라가 말했습니다.

아케라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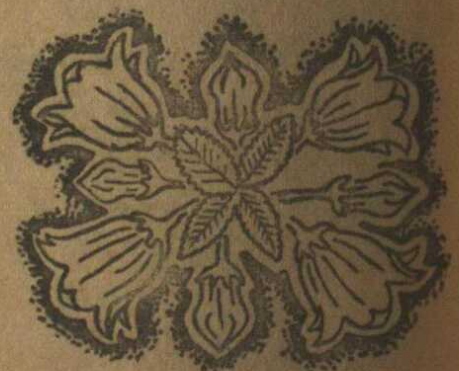
그는 어느 짐승의 무리전, 또  
어느 두목이전, 일정한 시기가  
오면 그 통솔하던 자리를 내 놓  
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그  
리고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  
는 것입니다. 그 때가 다달으  
면, 힘은 없어지고 몸은 약해져  
서, 마침내는 부하 늑대들에게

## 동요 도라지 꽃 박 경엽

뿌리는 희지만 꽃은 보라색,  
하늘 빛보다 더 고운 보라색.

활짝 핀 꽃은 간장 종지 같고,  
울오빠 진지상에 놓고 싶고.

오무늬 꽃봉우린 초롱불 같고,  
울애기 방문 앞에 달고 싶고.



박 경엽 아가씨는 울 여름에 결  
기여증을 나온분입니다. 이 작품  
은 시조 작가 담원 정 인보 선생  
님이 추천 해 보내신 것입니다.

죽고, 그리고는 새 동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그 새 동명도 운명이 같은 터이지만 —

“테리구 가지, 자유로운 백성에게 부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게나.”

아케라는 힘 없이 말했읍니다. 이리하여 모오구리는, 암소한 마디 대신으로, 발루의 선철한 말 한 마디에 죽을 것을 면하여 시오니 언덕 늑대무리에 끼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 교육받는 모오구리

독자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가 한 10년 뒤로 훌쩍 뛰어서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오구리가 늑대와 함께 지내는 동안 여러가지 놀라운 일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왜그러나 하면 이 10년 동안의 일을 다 말할려면, 몇 권 책으로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오구리는 늑대 아이들과 함께 컸읍니다. 다만 늑대 아이들은, 사람의 아이 모오구리가 큰 아이도 새 못 되었는데, 벌써 어른 늑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늑대는 모오구리에게 일을 가르쳐 주었읍니다. 또 정글 속에 있는 여러가지 것을 가르쳐 주었읍니다.

● 숲 속에서 바스럭대는 소리를 알아 내는 법.

● 따뜻한 밤에 풍기가 움직



이는 것을 알아 내는 법.

● 부엉이 우는 소리를 알아 내는 법.

● 박쥐가 나무에 앉아서 발음으로 나무를 잡는 소리.

● 언덕 속에 여러가지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것을 알아 내는 법.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세밀한 지식을 배워 두는 것은 여간 중요하고 또 힘드는 일이 아니었읍니다. 숲 속에서 생기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일찌라도 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범연히 보고 들어서는 큰 일을 지르게 된다는 것을 모오구리는 아버지 늑대에게서 잘 배워 두었읍니다.

이런 것을 배우는 틈틈이에는 모오구리는 골짜기 양지바른 곳에 나가서 낮잠 자기를 좋아했읍니다. 먹고는 자고 먹고는 자고 하였읍니다. 몸이 더러워지거나 더워서 견딜 수 없을 때엔, 숲 속에 있는 열 곳에서 헤엄을 쳤

읍니다. 그리고 풀이 먹고 싶을 때에는 나무에 기어 올랐읍니다. (발루가, 벌집의 꿀과 나무 열매는 고기에 못지 않게 맛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읍니다.)

나무를 올라가는 방법은 포범 바기타가 몸소 가르쳐 주었읍니다. 바기타는 골짜기 큰 나무가지에 누어서 모오구리를 불렀읍니다.

“여기까지 올라와 보련? 꼬마야.”

처음에 모오구리는 잘 기어오르지 못하고 애만 썼읍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거의 원숭이처럼 대담하게 나무가지에서 나무가지로 확확 날아 다니었읍니다.

또 무리들이 보름달 아래서 회의를 할 때에는 빠졌어 참석하였읍니다. 이상한 일은, 이 회의에서 모오구리가 어느 늑대든지 한 번 똑똑히 바라보면 그 늑대는 더 오래 모오구리와

눈소리를 마주대지 못하고 눈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모오구리가 알게 되자 재미있어서 가끔 늑대와 눈싸움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는 동무들의 발바닥에서 기다란 가시를 빼주고 하였습니다. 늑대들은 몸에 가시가 박혀서 몹시 괴로워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밤에는 또 가끔 언덕을 내려서 발을 갈아 놓은 땅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방에 있는 오막살이에 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신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바기라가 정글 속에 교묘하게 사람들이 묻어 놓은 멧을 가르쳐 주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오구리가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것은, 바기라와 함께, 어둡고 따뜻한 숲 속 깊이 들어가서, 심도록 낮잠을 자고, 그리고 밤에 바기라가 날새게 사냥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이었습니다. 바기라가 허기가 졌을 때는 아무 것이나 닥치는대로 죽이었습니다. 모오구리도 닥치는대로 사냥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단하나 모오구리가 죽이지 않

는 것은 가축이었습니다. 그는 철이 나자, 바기라로부터 암소한 마리와 제 목숨이 바뀌었다는 것을 얻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글은 온통 네 것이다.”

라고 바기라는 말했습니다.

“너는 무어든 잡아 죽일만한 힘이 생겼으니, 무어든 죽이어도 좋다. 그러나 네 목숨은 암소와 바꾼 것이니까, 너는 결코 어떤 가축이든지 죽여서는 안된다. 그것이 정글의 법률이란다.”

모오구리는 충실하게 이 말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먹는 것 밖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가 받드시 힘이 세어지듯이, 무력 무력 크고 굳어졌습니다.

### 정글의 꼬마둥이

이러는 하편, 모오구리는 곰의 발루로부터 정글의 법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크고 순한 늑대는 곰은 이처럼 영리한 생도가 생긴 것을 한없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린 늑대들은 정글의 법률 가운데서도 저이들 늑대끼리만 알고 지낼 것만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 발소리를 내지 말고 걸어라.

● 어떤 데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라.

● 자리에 엎드리어서 바람부는 것을 구별해 들어라.

● 새하얀 잇발은 다 동포의 표적으로서 승냥이 따위가 가질 수 없는 거룩한 것이니라.

하는 따위였습니다. 그러나 모오구리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따금씩 검정 포범 바기라는 어슬렁 어슬렁, 제가 귀애하는 모오구리가 얼마큼 학파를 배우고 있는가를, 보러 왔습니다. 그리하여 모오구리가 그날의 학파를 발루 앞에서 외우고 있는 동안, 바기라는 나무에 머리를 기대고 잠깐 하였습니다.

모오구리는 나무에도 골짜기를 다녔지마는 또 골짜기 해안을 찾습니다. 해험도 잘 치지만 달을 박질도 썩 잘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선생인 발루는 숲과 물의 법칙을 동시에 가르쳐주었습니다.

● 썩은 나무가지와 성한 나무가지를 알아내는 법.

● 땅벌 집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공손히 인사를 해야 하나?

● 대낮에 낮잠 자는 박쥐 말의 잠을 깰었을 때 무어라고 인사를 하나?

● 물에 뛰어들 때, 미리 물벌들에게 무어라고 말을 해야 하나?

이런 것을 익숙히 알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글에 사는 짐승들은 남에게 방해받



장편 만화 소설

## 피노치오

아직 안 가진 분이 제십니까? 두근 두근 보아도 재미나는 책입니다.

값 140원 (舊) 파는대 乙酉文化社

는 것을 싫어합니다. 만일 방해  
하는 숲을 만나면 죽석에서 달  
쳐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오구리는 다른 고장에. 사  
는 짐승이 사냥을 하러 왔을 때  
에 쓰는 말머릿도 배웠습니다.  
그것은 정글의 짐승으로서 제  
고장 이외의 땅에 들어가 사냥  
을 할 때에는, 대답이 있을 때  
까지 소리 높여 외치어야 하였  
습니다. 어떻게 외치는가 하면,  
“이부테 사는 아무개가 사냥

을 하러왔  
습니다. 배  
가 고프니  
하락해 주  
십시오.”  
하는 뜻이 있  
습니다. 그  
대답은,  
“먹기 위해  
사라면 사  
냥할 해도  
좋다. 그러  
나 장난으  
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었  
습니다.

학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얼  
마나 모오구리가 많은 지식을  
획득야 했다는 것을 넉넉히 짐  
작하실 것입니다. 터군디나 이  
연습을 적어도 딱 번식은 되풀  
이 하여야 되었으므로 그는 나  
중에는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  
다.

그러나 만일 모오구리가 학과  
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발루  
는 모오구리의 미미를 세기 때

리었습니다.

발루는 어느날 모오구리를 때  
리고 나서, 모오구리가 도망간  
뒤에 바기라에게 말렸습니다.

“사람의 새끼는 역시 사람의  
새끼이니가, 아주 이 정글의  
법절을 있는데로 가르쳐 줘  
야, 해.”

하고 변명 비슷하게 말했습니  
다.

검정 표범 바기라는 좀 언짢  
아하는 말씨로,



“하지만 아직 이런것을 알아  
야지. 고 조그만 머리에 그  
많은 학과가 한꺼번에 들어  
갈 수가 있냐말야.”

“그러나 어보게 바기라, 그래  
정글 속에서 너무 어리니까  
죽지 않는다는 일도 있디면  
가? 없지, 없어, 그러시 나  
는 부라후라 모오구리 너석에  
게 가르치는 거라네. 가르치  
느라니까 자연 때리지 되는

지지. 그너석이 배운 것을 까  
먹었을 때, 난 슬며 때렸듯  
마는듯 전드리는 거지.”

“그게 작으만한 때렸듯 마는  
듯 전드리는 거야? 아니 자  
네가 그런 새끼가 있을 것 같  
지 않네. 이 숲은 무척명이  
야. 그 애 얼굴을 좀 보란 말  
야. 얼굴이 온통 상처기 두실  
이니. 그제 다 자네가 전드리  
기 잘한 때테일세.”

이 말에 대하여 발루는 조금  
도 글리치  
않고 말했  
습니다.

“그새를 사  
랑하는 나  
로서는, 전  
선에 일이  
물모두 배  
를 때리는  
일이 있디  
마도, 아저  
긱하고 있  
다가 큰 리  
를 일러서  
는 안 되겠  
디. 나는 지  
금 그 애

한테 이 정글 전체에서 쓰는  
어러가지 알로 말을 가르치고  
있네. 그것만 알아 손으면,  
새들이나 짐들이나 그 법에  
어떤 짐승이든지 그새를 때리  
지 못할 것일세. 정글 전체에  
서 모도를 달는디엔 조금 나  
한테 물어봐도 전할지 않겠  
나.”

“그렇디엔 조금 더정글 살인  
가. 그렇지만 그새를 사네가

먼저 죽이지는 말게. 그애를  
자네 발톱을 쥐는 나무로 알  
아서는 안 된단 말일세. 그렸  
테 그 암호말이라는 것이 무  
언가? 어더 듣고 싶은데.”

바기타는 한 다리를 쪽 뻗고,  
그 끝에, 마치 강철 같이 푸르  
게 빛나는 날카로운 발톱을 내  
려다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모오구리를 불러서 시켜 봐  
지. 자아, 프마야 이리 나  
온!”

“내 머리는 털때가 우글거리  
는 나무처럼 헐어버렸어.”

하는 작으나마 끝이 잔뜩 난 모  
오구리의 목소리가 바로 그들  
머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과연  
나무에서 내려오는 모오구리는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난 바기타한테 온 것이져,  
선생님한테 온 게 아냐. 피기  
싫게!”

“아무렇게나 해 튀라.”

다소 섭섭한 말찌로 발루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그럼 네 말대루 바기타한테  
말해 봐. 오늘 맨 암호말 말  
이다.”

이때에 모오구리는 제법 어깨  
를 으쓱하며,

“어떤 겨레한테 하는 암호말  
말이애요. 정글에는 말도 여  
러가지애요. 난 그걸 다 알구  
있지!”

하고 뿡뿡했습니다.

“이녀석, 알긴 네가 뭘 알어?  
조금 알면 저따위 소릴 허거  
든.”

발루는 좀 성난 목소리로 모  
오구리를 나무타고,

“여보게 바기타, 이녀석들은  
선생한테 가르쳐 줘서 고맙  
단 말 한 적이 없네. 아 조그  
만 늑대녀석도 고맙단 말을  
한 걸 난 이렇게 나이 먹도  
록 본 일이 없어. 자아, 그러  
면 사냥하는 무리에게 쓰는  
암호말을 해 봐. 굉장한 학자  
님이시여!”

“우리들은 한 피를 타고난 거  
레다. 그대와 나와는.”  
하고 모오구리는 당황에 말하  
였습니다. 모든 사냥꾼에게 쓰  
는 곰의 말찌를 본떠서——

“그러면 세에게 미한 죄의 것  
을!”

모오구리는 이것도 쫓쫓 대  
답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수리 울음소리를 내었습  
니다.

“그러면 뱀한테 쓰는 암호  
말!”

하고 이번에는 바기타가 물  
었습니다. 이 대답은 글자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이상한 소리  
입니다. 모오구리는 장중 장중  
뛰며 손뼉을 치는 것이었습니  
다. 제가 맞춘 것이 산뜻한 모  
양입니다. (계속)

자아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일  
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지만 짐  
승과 생활을 같이하는 모오구리  
귀염둥이 모오구리가 정글을 헤  
매며 모험하는 이야기는 다음  
달부터입니다. (편집부)

★제 8 권 파는중★

중학교 풀기 위한  
**소년 상식**  
1,000문 답집

글벗집 위음 값 140원  
국민학교 五학년 생이면  
누구나 한권씩 가져야한  
다!

아협 발행

少年 少女에게 드리는 가을의 선물!  
읽으면 입은 수목 재미있고 유익한 책!

★이 른 선생 지음★

미담 **어린동대수** 四六 割  
소설 美本 價 250圓  
그림 二十餘 冊 入 價 250圓

★서울 樹社 刊★

서울 지골 출판사 各 書 房 均 有 發 售



# 우리 동무 동시집

## 형님 생각

서울 영재 국민학교 5의1  
유재호



어머니,  
형님은 어디 갔수.  
나는 보고 싶어  
형님은 언제 오우.  
응?

아마 며칠 더 시시다울걸  
어제밤 꿈에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은 왜 오시지 안우?

## 구름

서울 효제 국민 학교 5의2  
권길중

흰 솜같은 구름아  
 훨훨 날으며  
너는 마음대로  
노는구나.



나도 구름 같이  
날으고 싶다

구름아 구름아  
높이 높이 날아라.

## 아기

서울 동덕 국민 학교 5의1

### 엄문용

종종종 걸음마 숨이 가빠서  
제풀에 제풀에 넘어지는걸  
우리는 아기를 병아리래지

딱자궁 재롱이 혼자  
신나서

습차두 습차두 작고하  
는걸

우리는 아기를 종달새라지



## 개구리

서울 수송 공립 국민 학교 3의5

### 홍인숙

개구리가 개풀개풀  
비온다고 개풀개풀  
노래합니다

개구리가 개풀개풀  
비그쳤다 개풀개풀  
노래합니다



# 내 동생

서울 청운 국민 학교 3의3

홍 종 혁

내동생 자네예요 귀엽습니다.  
책상도 단편에 올라가지요.

내동생은 귀엽둥이  
참예쁩니다.  
엄니가 공부하러  
저도 한테요



엄마가 일할적에 손을 잡습니다.  
내동생 젓달라고 손을 잡아요.

# 꼬마 자동차

2남 광천 제이 국민 학교 5학년

홍 철 수

꼬마 자동차 뽐뽐  
꼬마 자동차 뽐뽐  
우리아기 타고싶어 손을 들면  
꼬마 자동차 뽐 정거하지요.



꼬마 자동차 뽐뽐  
서울 구경 간대요  
뽐뽐 간대요.  
우리아기 기뻐서 노래하  
지요.

# 아 침

서울 매동 국민 학교 5의3

최 영 일

바둑이도 식모따라

장에 나간새  
참새들이 모여앉아  
노는 살미당.



은행나무 새잎파리는  
열두빛나비  
날개를 하늘대며  
날고있는데

기미는 술술  
그물을 뜨네.  
은실로 술술  
그물을 얹네.

# 얼른 컷으면

서울 성동 국민 학교 2의 3

김 만 호

엄마,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제일 좋아요.  
나는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요!  
크며는 어머니라고 하고  
더커서 어른 되며는,  
어머님 어머님 할테어요?

누나, 누이, 누님,  
어떻게 제일 좋아요.  
나는 나는 누나가 제일  
좋아요.  
크며는 누이라고 하고  
더커서 어른 되며는  
누님 누님 할테어요?



영아, 언니, 형님,  
어떻게 제일 좋아요.

나는 나는 영아가 제일 좋아요,  
크며는 언니라고  
더커서 어른되면  
형님 할테어요.

## 두부 장수

강원도 강릉 국민 학교 4년

### 이 래 식

말가당 말가당 끝목으로

“두부사며 두부사며 뜨거운 두부사며”

허연 수업 걸지 느린

두부장수 할아버지

언제든지 소리질러

위고연 목소리로 “두부사며”

어머니가 그릇들고 찾아

나 가서

“어보세요 두부장수 할  
아버지”

“뜨겁고 큰 두부를 세  
모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말가당 말가당

만 끝목으로

“두부사며 두부사며”

## 어머니 손

경북 대구 국민 학교 5년

### 추 월 원

어머니 손은

부드럽고 하얀 손

덥고 미운

여름 낮에

고추장 담은

어머니 손

어머니 손은

부드럽고 하얀 손



## 별 하나

서울 방산 국민 학교 4의6

### 이 윤 수

하나별아 하나별아

너 혼자서 무얼하니?

살살히 혼자서

무얼하니?

이리 내려오렴

내가

말벗이 되어주우마.



## 별 고 나 서

## 박 영 중

이탈에는 짧은 작품이 많아서  
“우리동무 동시집”을 꾸렸습니  
다.

☆

“형님생각”

어머니께 형님이 어디 가셨느  
냐고, 왜 돌아오시지 안오시냐  
고, 그리고 보고 싶다는 그 말

을 아무런 구김없이 적어놓았습  
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보고 싶어 하  
는 생각이 잘 나타났습니다. 더

속

형님 언제 오시우

응?

의 “응?” 은 어머니를 쳐다보고  
물어본 유군의 동그란 눈이 보이  
는 것 같습니다.

“구름”은 역시 지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생각나는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음 노래를 읽어 보세요. 여  
여분의 생각이 좀더 자세히, 또  
데미나게 나타났을 겁니다.

구름은 훨훨 날아간다  
구름은 훨씬 크고 하얀색

나는 누어있다 풀위에  
너무 들 이름없는 꽃사이에

구름의 환한 날개에서는  
빛이 아조 쏟아지는듯

하얀 날개의 저 편 끝에  
바로 그 아래 그 어느 바로

지금은 어느 고을 하늘일까  
아무도 모르는 산우열까

구름이야 참말 좋고나  
아모때 아모때나 날아를 가너

나도 모르는 그 어느 곳에  
날갈은 어디든 있을터이지

구름은 훨훨 날아간다  
나는 누어있다 풀위에

“아기”

다음 노래는 김 정모선생이 지  
으신 것입니다. 잘 읽고 참고로  
하세요.

잠 자다가 일어나



## 개성 고려 국민 학교

고려의 옛서울 좋은 고장에  
소나무 사시로 푸르려 있네  
송악산 기슭에 터를 잡고서  
우뚝히 솟은건 우리 학팔세

정다운 동무들 고려의 빛들  
씩씩한 동무들 고려의 빛들  
배우며 뛰놀자 어서 자라자  
조선의 빛이될 우리들일세

새과람 하늘은 맑기도 한데  
새소리 피는꽃 모두 다좋다  
배우며 뛰놀자 어서 자라자  
조선의 빛이될 우리 들일세

(유 탈 영 지음)

영영 운다고  
어머니는 날보고  
강아지래요.

젓 두통을 맛있게  
쭉쭉 빨다고  
어머니는 날 보고  
강아지래요.

풀속에서 웃으면  
귀엽습다고  
어머니는 날 보고  
강아지래요.

“개구리”는 자기의 느낀 것을  
잘 다듬어서 나타내었습니다.

“내 동생”  
내 동생은 사내예요.

하고, 다시  
귀엽습니다.

이렇게 두번 씩어서 노래하였  
는 곳이 재미납니다. 만일

사내 내 동생은 귀엽습니다.  
하였다면 참 즐거운 노래가 되

있겠습니다.

“교마 자동차”는 어린이 편

정스러운 늙은늬이가, 잘 나타났  
습니다.

우리아기 타고 싶어 손을 들면  
하는 곳이 잘 된 곳이며 또 재미  
있는 때입니다.

“아침”

아침의 관찰을 잘 하였습니다.  
바둑이가 없어진 뜰에 참새들  
이 모인다는 것... 거미가

“별은 컸으면”

어머님보다 어머니가 더 정다  
울고, 어머니보다 엄마가 좀 더  
정바올다는 노래입니다. 말에  
대하여 이처럼 찬찬한 느낌을 가  
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두부정수”

중요나 동시면 별난 것이라 생  
각하던 분은 이 노래를 한번 더  
읽어보세요. 우리옆에 늘 지내  
지는, 어러가지 무심한 일도 일  
아는지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두부 사려, 두부사려”

외치는 목소리까지 시속에 넣  
혔는 것은 익 숙한 솜씨입니다.

“어머니 손”

이 노래는, 비슷한 노래를 나  
도 알고 있으나, 남의 것을 잘  
읽고, 거기까지 / 생각을 담  
아 보는 것도, 참 지어보는 사람  
으로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별 하나”

조지영 하늘에 떠 있는 의로운  
별... 야기는 그세 줄이라노 잡  
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저 모습  
이다. 의로운 별아.

떠는 무일하니

나와 같이 내려와 놀자. 내가  
말뱃이 되어주마는 것입니다.  
“말뱃”이란 말도 아름다운 말입  
니다.

그외 잘 지은것이 많아서, 이틀  
만 뽑아 놓는다.

가을입니다. 가을은 불을 밝  
혀두고 공부하기 좋은 절입니  
다.

귀뚜라기가 옵니다.

...○○○○ ◇ ...○○○○

☆ 잘지는 사람들 ☆

- 바다 • 송원 국민 학교 4의1 김 정 환
- 귀 • 효제 국민 학교 5의2 권 길 중
- 비바람 • 혜화 국민 학교 3의1

(27페이지에서 계속)

잇었던 손이 하늘에서 찾아온 것  
을 반겨맞이하러 잠을 이루을 줄  
모르고 즐겼다. 그러나 알지 못  
할것은 모산지대의 천후이다. 달을  
벗으르길고 깊은 처녀림 속에 천  
상의꿈을 맺는가 하고 잠이 들었  
더니, 아침 눈이 깨이며 천막으로  
새이르는 비바람이 모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랐다. 눈 내리는  
산길도 험하지만 비오는 산길의  
지국은 것은 참말 우울하기 짝이  
없는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루를 비 오는 두부에서 천막  
에 감금된 날을 보내고나서, 밤  
부터 비가 개이기 시작 하여 맑  
게 날에 일찌기 천막을 걷고 몇  
천년 것이 7월20일. 기상반의  
“천기 제철” 이라는 이날의 예보  
에 전원은 일중 기온을 얻어  
두부에서 탈출티미만, 나직 나  
직한 것나투와 낙월중 숲사이를

유 집 장

언덕 • 종로 5가 125

그 기 덕

명 • 연백 보육원 5학년

희 금 선

마르르 • 석성 국민 학교 4의2

서 기 식

재미 • 돈암 국민 학교 4의8

황 중 순

나무잎때 • 종로구 내수동

현 덕 조

재그리노래 • 부산 사범 국민 학  
교 5의1 김 태 등

졸일때 • 매동 국민 학교 5의3  
희 영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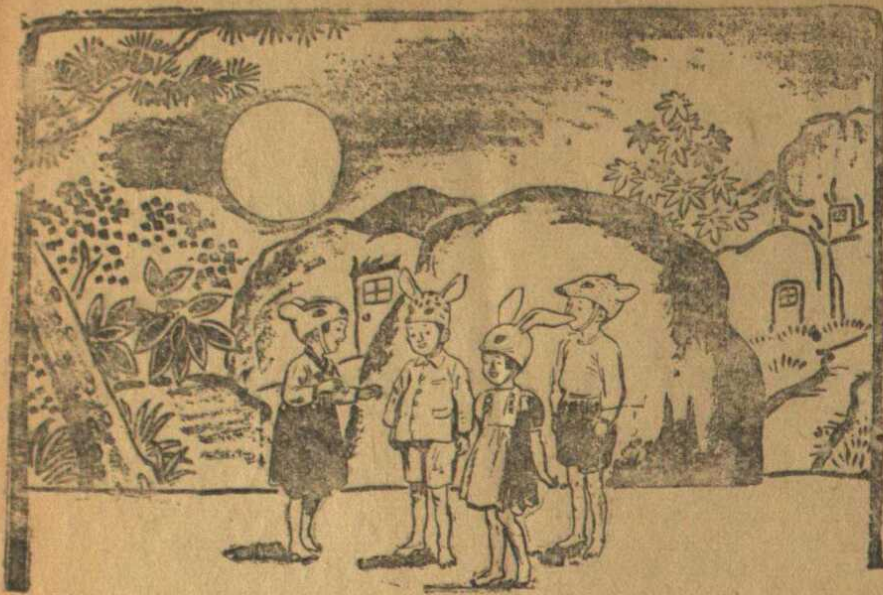
실버물 • 매전 삼성 국민 학교 2  
의1 이 시 식

집안치우기 • 돈암 국민 학교 4  
의8 김 선 예

까지 나가니, 거기서부터 삼림의  
한계(限界)가 되어 있고, 화산재  
와 부석(浮石)으로 된 모래밭 같  
은 언덕 밑에는 배화꽃송이 곱  
은 노란 금낭매(金囊梅)를 뒤적  
한 고산지대의 꽃밭이 떨어져  
고, 멀리 이 삼림의턱에 가을이  
적외로록 바라보이는 것이 백두  
산의 절묘이다. 우리는 이날로써  
백두산 경관에 이른다는 기쁨을  
만끽하여 이를 모를 기뢰 요로의  
꽃밭을 데이며 달려 온다.

(계속)

현재 소설 “경구선생”은 필  
자의 사정으로 중단하게되  
었습니다.그대신, 이 경구  
선생이 다시 좋은 소설을  
써 주시기로 화약시요니,  
독자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합니다. (정경부)



동극

# 한가위

박 일 우

나오는 동무들  
여우, 범, 토끼, 다람쥐,  
노루, 멧돼지,

때, 한가위 밤,  
곳, 산속,  
아람드리 나무가 들어서고,  
한 가운데의 큰 바위를 둘러  
쌓고 군데 군데 바위가 있으  
며 그 틈으로 굴이 있다. 보름  
달이 낮같이 밝다.

노루 (노래)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멧돼지 정충 정충 뛰면서 어  
디를 가느냐,  
토끼 (원정에서 노래하며 뛰어  
들어온다.)  
산고개 고개를 나훈자 넘어가

토설토설 밤송이 주어 울테야  
노루 } 애 우리 예서 함께 달  
멧돼지 } 구경하고 재밋게 놀자.  
토끼 } 그렇까.

노루 } 그럭해 자아 다람쥐도  
불르자, (굴을 드러다 보고)  
다람쥐야, 나와 놀자, 다람쥐  
야,

토끼 } 달이 이렇게 밝은데,  
고 바지런 장이가 집에 붙어  
있을줄 아니,

멧돼지 } 어딜 갔으까?  
토끼 } 알밤 주으러 갔을테지  
가만 있자. (귀를 쫓긋거리다)  
저쪽에서 바스락 소리가 난  
다. (바른편을 가르킨다.)

멧돼지 } 노루야, 키 큰 네가 좀  
봐라.

노루 (지다보다가) 울지, 울

지, 저기서 알밤 즐고 있다.  
멧돼지 } 우리 커다랗게 노래하  
자.

모두 } 그래자. (노래)  
다람 } 다람 다람쥐,  
알밤 } 즐는 다람쥐,  
보름 } 보름 달 밤에,  
알밤 } 즐는 다람쥐,  
알밤 } 인가 하고,  
조약 } 들도 즐고,  
알밤 } 인가 하고,  
솔방 } 울도 즐고,  
(모두 } 깔깔 웃는다.)

다람쥐 } (바위 뒤로 숨어서 솔방  
울을 주어 던진다.) 었다 알밤  
먹어라.

노루 } 아얏.  
토끼 } 어디, (집어 먹으려다)  
에 } 이진 솔방울. (던진다)

다람쥐 } 하하하 털렁장이 토끼  
나 } 그렇게 솔방울을 알밤으로  
속지, } 이렇게 밝은 달밤에 누  
가 } 알밤인줄 알고 조약들이나  
솔방 } 울을 즐는칸 말이나. (약  
간 } 토라 진다.)

노루 } 너 놀릴랴고 그렇게 아  
니다. } 네가 듣고 오라고 그냥  
노래 } 한게지.

멧돼지 } 말하자면 우리의 귀어  
운 } 동무 다람쥐님을 오시라  
고 } 불른거야.

다람쥐 } 노루의 능청이나, 멧돼  
지의 } 말솜씨가 근사한데,  
토끼 } 자 인제, 이야기는 그  
단 } 하고 우리 재미있게 놀자.

다람쥐 } 무얼 하고 놀가?  
노루 } 퓌박질하자.  
멧돼지 } 조건 아는게 퓌박질이  
야.

노루 } 그럼 뭐 좋냐?

멧돼지 씨름이 좋다. 씨름을 하고 놀자.

노 루 그렇지. 넌 씨름이나 해야 뽀넬대니까.

멧돼지 너희들은 뭐 했으면 좋겠니?

토끼 난 산울르기.

다람쥐 모두 저 잘하는 것만 하자는구나.

토끼 그럼 넌?

다람쥐 글썽 숲박꼭질이 어떻나?

토끼 기껏 숲박꼭질.

노 루 참 그러구 보니 모두 제 각자이구나 그러지들 말고 협박질해.

멧돼지 싫어, 씨름이 좋다.

토끼 산울르기 하재두.

다람쥐 숲박꼭질이 재밌지 않나.

여우 (원천에서 나온다) 애렴, 여기들 모였구나 나도 함께 놀자, 애렴.

토끼 피쟁이 여우님이 우리 하고 놀잖애가 다 있다.

노 루 난 너하구 놀기 싫다.

다람쥐 난 네 몸에서 나는 냄새가 노려서 같이 놀기가 싫은데…….

멧돼지 너는 성미가 간사하고 나쁜 피만부리고 해서 우리 동무가 될 수 없다.

여우 애들아 그렇게 모름 모름 마라.

토끼 너 요전에 살평이 보거나 부들어 가라고 우리 집을 밀러줬지.

여우 내가 언제?

멧돼지 요것쯤 봐, 아 내가 들었는데——

여우 건네가 잘못 들은거야 애렴, 아무러기로 동무를 부들어가말 이가 있다, 안 그렇지, 멧돼지야?

멧돼지 아이구 조저 헛바닥이 몇개기에 조렷지 야불거릴까.

여우 애들 그렇지 마라. 내 존거 줄께, 자아 이거 아주 맛난 강아지 고기……어때 나하구 놀지? 응?

다람쥐 어디서 또 파왔구나.

노 루 어쩐지 고 뽀속한 주둥이가 빨강더라니.

토끼 아이 정그러.

멧돼지 에이 기분 나쁘다. 애들아 난 집에가서 잠이나 자겠다.

토끼 남 밤이나 주으러 가지 하지 공원이 불리놓고 숙 썩여.

노 루 이력하자, 오늘이 일년에 한번 밖에 없는 가위(嘉俳)명절이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각기 특별이 맛난걸 벌어 가지고 이리 와서 노나 먹으며 거드러 거리고 달 넘어갈때까지 놀자.

멧돼지 참 그게 좋겠다, 그럼 저 달이 이 나무위에 오기전에 갔다 와야한다.

모두 (여우말고) 그래 그래 어서 가자!

(토끼, 멧돼지는 원천으로 다람쥐, 노루는 바른편으로 나간다)

여우 (혼자 고기를 먹으며) 요놈들 보자.

범 (바위 위에서 나온다) 어렴, 여우야 이노— 그 고기 이리 내 거라!

여우 (잠착 놀렸다가 태연한 체하며) 애렴 애렴, 야 이거 빈아니냐, 참 오래간 만이다, 범 누가 잘소리 하겠니, 어서내와.

오우 애렴 못 내와,

범 내 손에 죽고 싶으냐?

여우 피이, 요 전에는 내가 너를 못당했지만 인제는 내가 이 산속의 임금님이야, 이놈 호랑아, 애렴.

범 (덤벼들며) 정말 비포장이 없는 갯집한눈 팔으니까 구 이놈, 뒤앞에서 임금이타는지냐, 어디 좀 걸배봐라, 어렴.

여우 (슬슬 피하며) 이터면 누가 무서워할줄 아니, 이터지 말고 우리 정정 땅땅히 털 거름을 하자.

범 그래 좋다. 아모겨던지 하자.

여우 그럼, 우리 저 봉우리 로 올라가서 달구경을 해가며 내기하는 방법을 차근 차근히 의논하자.

범 그래 (여우와 바위위로 나간다)

토끼 (원천에서 나온다) 내기 일등이구나!

(다람쥐 바위 바른편에서 들어온다) 다람쥐야, 넌 뭐 갖어 오니?

다람쥐 나 알람, 넌?

토끼 난 아구 아주 훌륭한 거더.

다람쥐 쥘때?

토끼 이따 다 보이거든 쥘때

다람쥐 지금 좋 모자.

토끼 알 쥘. (모피니 산에서)

니 하는데, 노루, 멧돼지 양쪽  
에서 나온다) 야아 멧돼지 봐  
라 척 뿌리구나!

멧돼지 자아 이리 와서 들러  
앉아 내놔봐. 어때 이거, 아  
주 굉장하게 크고 단 척 뿌리  
다람쥐 난 기름이 뽀지르 흐르  
는 고소한 알밤,

노루 이걸 먹으면 기운이 쫄  
쫄 나는 산삼!

다람쥐 야—산삼—참 좋구나!  
로끼 난 기막히게 좋은걸 가  
져왔단다.

다람쥐 뭘때 아까부터 자랑만  
하니?

로끼 이 세상에는 없는거야.

멧돼지 아따 약장사 그만하고  
내놔봐.



로끼 (연설조로)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들어 주십시오.  
저기 저 하늘에 둥둥 뜬 거울  
같이 밝은 달 나라에는 억만  
년 묵은 아름다운 나무가 있  
으니 그것은 바로 계수 나무  
입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우  
리 아저씨벌되는 옥토끼가 몇  
천년 두고 두고 떡 밤아를 썰  
어 만드신 것이 여기 이 달떡  
입니다. 이 떡은 먹으면 늙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제가 여  
러 동무님네를 위하여 특별히

달나라에서 갖어온 것이니 많  
이 잡취주십시오.

모두 (손뼉치고 맛있게들 먹  
는다, 여우와 범이 조금전부터  
바위위에 나와있다.)

여우 호랑아, 아까 걱정하던  
로내가 지면 이 개고기를 너  
를주고 네가 지면, 내가 이  
산속의 임금님으로 너도 언  
제던지 내 편을 들어야한다.

범 그래 틀림 없다.

여우 그럼, 재들 있는데로  
내가 먼저 가서 널 부를테니  
재들이 내가 갈적과 내가 갈  
적에 어느때 더 무서워 하나

봐서 더 무서워하는 편이 이  
기이다.

범 다시 말 안해도 안다.

어서 먼저 가봐라.

여우 (여럿 있는데로 가며,)  
애렘, 뭇들 먹니?

멧돼지 너하고 안논다는데 왜  
되지않게 따러다니며 말성이  
야.

여우 셋! 저기 못봐 호랑  
이 온다 호랑이!

모두 응? 애그머니나. (갈  
광질광 야단들이다.)

여우 애렘, 무섭지, 내가 하

라는대로 해야 살고 그렇지않  
으면 죽는다!

노루 어떡하면 되니.

여우 모두 전대로 앉아서 호  
랑이가 어형대도 끔찍한어아  
산다.

멧돼지 도망도 못가게되고 쫄  
수있니 죽던 살던 여우 말하  
로 해보자.

(모두 벌벌떨고 엎드렸다. 여  
우 손짓으로 범을 불러 범이 어  
형하고 소리치며 들어온다.)

여우 고개를 들고있어. (모  
두 그대로한다.)

(범 생각에 아까 여우가 숲속  
에는 무서워 도망가던 것들이  
제가 오니까 그대로 있는걸 보  
고 과연 여우가 저보다 훨씬가  
보다고 놀란다.)

자, 아까 나 들어올때, 재들  
이 무서워 뛰고 야단치는 것  
너도 봤지?

범 그래.

여우 지금 네가 들어와도 어  
디 아까 내가 들어올때 같으  
냐?

범 글세 참 이상하다.

여우 어때, 인제 내가 무서운  
이 산속의 임금님이신줄 알  
았지?

범 어허, 참 뭇일 다 봤네.  
여우 애렘, 호랑아 너는 늘  
내편이다.

범 졌으니 할수없지, 그래  
라. (바위위에 가서 앉는다.)

여우 (남신 바위위에가 따라  
서 앉으며,) 애들아, 너의줄  
먹던것 이리 갖다 바쳐라.

모두 .....

여우 왜 빨리 안가지오는거



야 호랑이가 내 편인줄 몰라.  
모 두 (범이 안보는데도 입을  
술 끼죽거리고 말안듣는다.)

여 우 애 범아, 너 소리 한번  
들러라.

범 어형, 이놈들. (모두 썰  
겉기어 갖다 준다.)

여 우 (개 고기를 범에게 주며)  
내가 이겼지만, 그럴수있니,  
이거 먹어라.

호랑이 (반아서) 먹지. (정신없  
이 먹고 있다.)

여 우 요건 달떡 맛있구나,  
요건 또 알밤, 아이 고소해  
라, 요곤 칩뿌리 어디, (썰어  
보다가) 뵈수 없다. (내버린  
다)

멧돼지 너 먹으라고 가져온줄  
아니. 어더 줌 두고 보자.

여 우 보면 어찌, 애햄 요곤  
드라지 아닌가, (한입 베풀다  
가) 아이 썰, 아이 썰, 이따  
위를 치먹으려고 가져와, 옛  
뽕뽕! (침을 함부로 뱉으며 방  
정순 면다.)

노 루 누가 널더러 치먹으려  
지정이나. 이 날도적놈아.

여 우 뵈이 어찌구 어찌. 애  
호랑아.

노 루 아니야, 잘못 했다. 잘못  
했어.

범 (다 먹은 입을 씻고) 왜  
그러니?

여 우 우리 애들을 노래시키  
고 춤을 추게해서 오늘 달밤  
노리를 걸관저게 해보자.

범 좋도록 하려무나. (별  
뜻미를 느끼지않고 준다.)

여 우 애햄, 애 너의들 한번  
뵈있지 놀이 봐라.

멧돼지 싫다.

노 루 누가 네 장단에 춤출줄  
아니?

멧돼지 호랑이만 없으면, 너  
당장 요절이야.

여 우 애햄 잔소리 말어, 자  
다람쥐야. 너 노래 잘하지  
어더 해 봐라.

다람쥐 목이 쉬어서 못한다.

여 우 그리고 트끼는 춤 춤  
추고,

트 끼 난 발목을 빼어서 춤  
못 춘다.

여 우 요것들 순순이 라일르  
니까 안되겠군. 애 호랑아.

트 끼 아서 아서 내 할께.  
다람쥐

여 우 노루하고 멧돼지도 할  
생각 해야한다.

멧돼지 왜 싫다는데 이리 극성  
이나.

여 우 말성 일으켜야 네게 존  
아갈것 없다. 자 다람쥐야 어  
서 불러라.

다람쥐 (노래를 억지로 하는데  
다가 트끼춤도 엉터리다.)

팔월에도 추서 날은 아주  
좋은 날,

기다리던 우리들의 명절날  
일세.

주렁 주렁 밥과 대추마냥  
따먹고,

멧드러진 달밤노리 그럴듯  
하다.

여 우 자 그담 노루가 노래하  
고 멧돼지가 춤 췌봐라.

둘이다 할줄 몰라 못한다.

여 우 어더 너의들 가족애 호  
랑이 발롬이 박히게돼도 못한  
다나보자.

막뒤에서 범소리 어흥 어흥아

우야 나 함정에 빠졌다. 살배  
다우. 어흥.

사람들의 소리 야아 범 잡혔다  
아!

범 이크! 언니 범이 함정  
에빠진 모양이다.

여 우 뭐?

범 큰일 났다가 봐야겠  
다. (가려한다.)

멧돼지 호랑이만 가 봐라.

노 루 호랑이 가는 날이 너  
죽는 날이다.

여 우 아이구 호랑아 어더 잔  
디는거나.

범 가라 왜 부르니.

여 우 재물이 너만 가면 달  
죽인다고 야단이니, 아까 약  
속대로 네가 여기서 내 걸을  
들어줘야할게 아니냐.

범소리 아우 어더갔다. 나 죽  
는다. 어형.

범 저금 수와 언니가 죽느  
냐, 사느냐하는 관에 너 죽는  
걸 알지 뭐냐 가라. 차!

다람쥐 잘코사니.

트 끼 남의 힘을 빌어서, 겐  
척하고 으시렸지. 어더 전더  
봐라.

(나가려는 범과 부들려는 여  
우가 실감이 뵈다.)

모 두 호랑이만 나가봐라. 호  
랑이만 나가 봐라.

(모두 썰썰 췌며 소리 지르며  
함성속 범의 비명과 여우, 범의  
실감으로 시골덜렁한 속이먹히  
버린다.)

—막—

그림·김 의 환

우리 학교 작품



인천역에서 끝은 큰 길로 순풍 미루하기를 거쳐 내려가면 왼쪽으로 높이 솟아있는 산루교 성당 뒤에 삼층 콘크리트 집과 이중 벽을 집(후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정기도 안에서 크기로 유명한 인천 신흥 학교입니다. 원래는 일본 사람학교였던 것을 우리 나라가 해방되자 진주(進駐)한 민군이 자기네를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단기(278)년에 접수하여 개교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24학급이 편성되었던 것이 그간 3회의 졸업생을 내고 하는 동안에 점점 발전하여 지금은 3500명의 어린이와 50여명의 선생님이 한량 한뜻으로 이 나라 역사를 위하여 배움의 길을 뚫고 있습니다. (기자)

★나의 당부★

인천 신흥 교장 조운준 선생

사람은 누구나 다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우리를 가정 에 있어서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는 데서 위대어 사회와 국가와 같은 큰 덩 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덩어리의 한 조각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이 없고 도움이 없다면, 아무리 큰 덩어리라도 힘 없이 떨어지 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어느 나라 보다 더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침략을 받고 놀리 어 살아온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대한의 어린이는 이러한 점을 더 한층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앞선 나라들과 어깨를 같이 하고 나가려는 때 앞으로 새 길을 내 디딜 여러 어린이들은 크나 큰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고 나아갈 어린 동무 들에게 나는 늘 이런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가 우리 학교에서 어린이들과 같이 배우기며 생활에 즐기는 교훈입니다.

(가) 성실한 어린이

저것없는 참된 사람이 되자.

(나) 근면한 어린이

부지런히 배우며 일하자.

(다) 협조하는 어린이

서로 사랑하고 돕자.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를 그리고 배움의 열매인 여러 어린이들에게. 나는 늘 어느 나라 사람 보다도 성실하고 근면하고 협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 12 회 인천 신흥 학교치

=동요= 바람

3의4 조 윤 작

바람아 바람아 자주 불지 말아라  
어여쁜 꽃들이 떨어지면 어찌냐  
꽃밭을 짓밟고 다니지는 말고서  
너 다니는 산길로 마을대로 다니렴

바람아 바람아 자주 불지 말아라  
앞뒷뜰 양지쪽 푸게 피인 꽃들이  
빨갳게 노랗게 웃는 얼굴 보일때  
네가 가면 서럽게 떨어지고 만단다

=작문= 돌아가신 아버지

4의8 서 칭 작

우리 아버지는 병으로 오래 앓고 누어 계시다가, 서울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앓고 계시는 판제로, 처음부터 그리 너네하지 못한 우리 집은, 더욱 가난에 시달리고 늘 집안이 불안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가끔 후원 회비 독촉을 받

는데, 다른 동무들처럼 희희낙락 다 내지 못하는 것이 늘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앓고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 후원 회비는 낼 수 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를 믿고 사는 우리집에서 아버지가 저렇게 되시고 보니, 비는 사람없는 우리

집에서는, 아무지 어찌 할수 없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도  
수병으로 가끔 누어 계시는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근  
접한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무들이 가끔 나를  
보고, 어디 아프냐 하고 물읍니  
다. 그 소리를 듣고 나자 아니라  
고 하시는, 동무들은 이상하다는  
뜻이 내얼굴을 들여다 보고 합니  
다. 나는 그럴 때마다 공연히 그

냥 울고싶어 집니다. 그러면 풍  
안에도 아버지의 병은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도로 집으로 돌아 오  
셔서 병치료를 하시게 되었습니  
다. 그 전에 아버지가 앓기 전에  
는 아버지 앞에 앉아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도 듣고, 또 후원 회  
비 같은 것을 말만 하면 금세 배  
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생  
각하면 마음이 아픉니다. 어느날  
이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



(사진은 조 운준 선생)

### 교 가

인천이라 한 북관 바다를 보며  
우죽 솟은 배움집 우리 선생은  
글씨고 아름다운 대한의 꽃이  
한 마당 음실 음실 피어 남니다  
아아 선생이여 인천의 새 짝  
새로히 일어나는 삼천 어린이  
선생은 이 고장의 자랑되오리

(후렴) 선생 선생 즐거운 선생  
우리의 어머니 즐거운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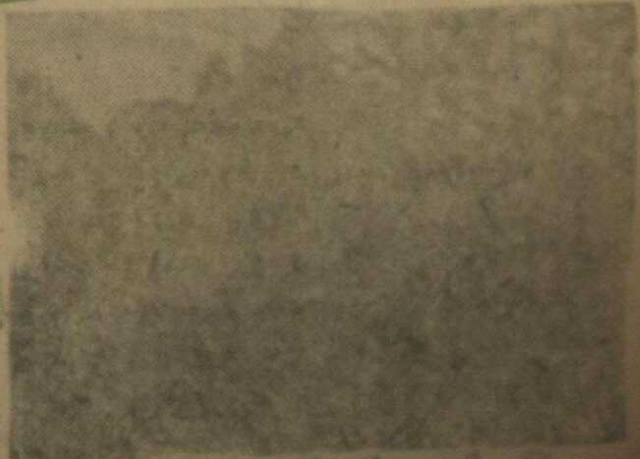
인천이라 한 북관 바다를 보며  
아침 해 담복 받은 우리 선생은  
나가고 벌어가는 대한의 힘  
한 마당 가득 가득 자라 남니다  
아아 선생이여 인천의 새 짝  
씩씩하게 자라 나는 삼천 어린이  
선생은 이 나라의 기둥 되오리  
(후렴) 선생 선생 즐거운 선생  
우리의 어머니 즐거운 선생  
(조 운준·지음)

를 마치고 다  
른 날과 마  
찬가지로 아  
버지 생각을  
하며 부지런  
히 집앞에까  
지 왔을 때,  
우리 집에서  
곡하는 소리  
가 들려 왔  
습니다. 나  
는 그 때 급  
세 머릿 후  
에, 즉시 아  
버지께서 들  
아가셔서 우  
는소리가 아  
닌가? 생각  
에 가슴이 드

끔하였습니  
다. 그래서 빨리 집으  
로 들어가 보니  
자, 정말 아버  
지는 돌아가셨  
습니다. 집으  
로 들어 갔더니  
어머니도 동생  
도 언니도 오  
빠도 다 울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  
버지의 집치로  
방에 있었습  
니다. 나는 아  
버지를 불쌍하  
다 울며, 아버  
지를 불렀으나,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들도 못  
보시고 돌아가  
셨을 것을 생각  
하니 울음이 더  
져 나왔습니  
다.

다음 11월에는 경상남도 마  
산 설초 공립 국민 학교 직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  
복  
하  
늘  
부  
운  
은  
직  
장



습 자 5년 집 중 근

도 화 4년 이 상

81

노 양 근 작

동화집 **눈먼소년** 값 250원

노 양근 선생은 여러 소년소녀들을 위해 많은 재미 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쓰셨지만 여기에 또 눈먼소년 외 여러가지 재미있는 동화를 쓰셨습니다  
여러분/우리가 만일 눈이 멀었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니까? 그러나 이 눈먼소년은 눈을 멀었으나 눈쁜 사람으로도 감히 하지 못할 훌륭한 일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고 그때 나뭇잎에 칭찬을 받고 나중에는 눈도뜨고 나뭇잎을 도와서 마칠내는 대신이되었다는 재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나올책

한도편집부 **그림 동화**

특히 그림을 많이 넣은것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2

**한성도서주식회사**

전화 ① 1478 • 전체 505

노 양 근 작

소년소녀 **열세동무** 값 180원

재미있고 유익한 책!

열세동무 이 얼마나 귀여운 이름이나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우선 좋은동무를 사귀어야할것이다 열세동무의 나오는 세환이는 가장 훌륭한 소년이며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가장 한소년이다 그의 눈부신 활동을 여러소년 소녀들은 이 책을 읽어서 본받고 또 세환이에게 지지않을만한 훌륭한 소년 소녀가 됩시다

노 양 근 작

동화집 **날아다니는사람** 값 200원

날아다니는사람 이 이야기는 꼭 재미 있고 신기하고 또 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어린이들은 사람이 날아다니면 혹 의심하질꺼 모를나라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 어디서 사람이 날아다니는가 자세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배움이 될 것입니다 (그림만재)



년 이 기록)

(답) 온양에

서 오느라고 애  
썼네. 그 건 달

(문) 날드 폐 선선해  
지고 했으니 좀 어려운  
문제를 나서 다시 맘을  
테드려야 겠어요. 그러  
면 준비하십시오. 길고 짧  
고 등글고 네모 진게 무  
엇일까요? 더울지도 않  
은데 왜 맘은...하하하.

(서울 메동교 5년 홍 승  
우)

(답) 좀 까다롭기는  
하이. 그러나 내 손에 걸  
리던 어렵 없지. 사람의  
한 평생일세. 한 평생.

(척척 박사)

(문) 그럼, 제가 물  
겼어요. 별유 천지 비인  
간에 광가하고, 백가하  
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요. (온양은천 국민교 6

같이지런가. 빨리 빨리  
다음은 또 누구야. (척  
척 박사)

(문) 너구 진담을 흘  
리셨으니가 좀 쉬운 문  
제를 풀으세요. 보일 때  
는 안보이고, 안 보일때  
는 보이는 건? (대전선  
화 국민교 6년 김 회영)

(답) 쓸 데 없는 격  
정 말구 어려운 문제나  
많이 내제. 그 건 극장  
의 막이지 뭐야. 다음은  
또 누구야(척척 박사)

(문) 그럼 어디 어려  
운 문제를 당해 보세요  
비가 오면 등글해 지고  
날이 개면 길쪽해 지는

게 무엇? 빨리 빨리...  
(강원도 강릉 국민교 이

태식)

(답) 지금 마침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이 가  
지고를 가고 있네. 그건  
우산이지. (척척 박사)

(문) 안녕하세요. 질  
문하나 받으세요. 베개는  
하난데 수질명이 비는게  
무엇? (서울 서대문 국  
민교 6년 김 태영)

(답) 이게 문제야.  
들보에 석가래가 나란이  
누워 있는 모양일세 그  
려. (척척 박사)

(문) 끝으로 좀 어려  
운 거—열한촌되는 집  
이 있다니 어디 있고,  
무엇하는 집이 겠어요.

저 것봐, 왜 머리를 굽  
고만 계세요. (서울 영  
회교 4년 강 현수)

(답) 어디서 마지막  
에 이런 문제를 끌고 오  
나. 길은 산속에서 온은

히 들려 오는 종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게  
거기가 절(寺)이지 어리  
겠나? 이번 달엔 보무  
지 쉬워서 하품만 나네.  
더운 달 부터, 쫓겨나는  
문제를 겁어 치우고 좀  
어려운 걸 가져 오게.  
(척척 박사)

★여러분이 어려운 문  
제를 가지고 오셔서 분  
무한 보람없이 모두 지  
고 마셨습니다. 척척  
박사께서 큰 소리는 하  
지만 머리에서 김이 무  
럭무럭 나고 있어요. 다  
음 11월에는 여러분 등  
항부 시켜보세요. 그런  
데 척척 박사께서 다음  
달부터 어려운 문제를 가  
져오는 분에게 “척척 박  
사상”을 드린다고 합니다.  
좀 힘써 보세요. (척척  
박사 비서 씨등이)



# 에독자 아힘 상라기

## 새 문제

1, 2, 3, 4, 5, 6, 7의 일곱 숫자를 가지고, 덧셈을 하면 그 답이 꼭 100이 됩니다. 어느 것 끼리 짝이 지어 서 어떻게 더해야 좋겠는지요?

(보기) 가령 1, 2, 3, 4, 5를 가지고 55를 만들라고 할때 34

+21 가 되는 것과 같이 하면 됩니다. 55

1등, 20명.....학용품 한벌씩  
2등, 60명.....좋은 책 한권씩  
마감, 10월 20일

발표, "소학생" 12월치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영보빌딩 아힘 "소학생" 편집부

**★ 물건의 값**  
어머니...애야. 무슨 물건이든지 살 때는 값을 먼저 물어 봐야해. 순희...네. 이모님, 우편국으로 엽서를 사러가서, 순희...15원짜리 엽서, 얼마예요? 숙희...?? (서울 영희교 6년 이은환)

**★ 돈 벌이**  
갑...어떻게 돈 안드는 경수 해보려나?  
을...무슨 경수를 돈 안들구 하나?  
갑...다른 게 아니라 자네집에 불을 쬐고 숫경수를 하잔 말야. 순...뭐...! (서울 오석홍)

**★ 과거**  
수나...네 노마야, 너 여기 있던 과거 어렸니?  
노마...저어 때 고픈 아이 주었어. 수나...말 했다, 그 애가 누구냐?  
노마...저어...나야.  
수나...??...!

(서울시 종로구 보림동 34의 1 박승렬)

**★ 무엇이 없는 동물**  
선생님...이 세상에 이가 없는 동물 풀이 있다. 무엇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말해 봐라.  
생모(1)...네! 하나는 배추 벌레, 또 하나는 누에입니다.  
생모(2)...또 있어요. 우리 집 장난 애기부세요.  
선생님..... (서울 정제교 5년 임용직)

**★ 우리 집은**  
선님...수집아 씨집 어디냐.  
수집이...저동이집 뒷 집이에요.  
선님...저동이집은 어떤데?  
수집이...그러니깐 저어 우리 집 뒷집이요.  
선님...?? (서울 한서교 4년 박학진)

주의 보내시는 분의 학교, 학년, 이름을 속 종이에 똑똑히 쓰시고, 봉투 겉엔 "현상" 이라고 쓰십시오, 문제는 안 쓰셔도 좋습니다.

### 부 7월치 상라기 발표 부 바른 대답과 뽑힌 분

- 1 처음에는 원유(原油)라고 부르며 황갈색(黃褐色), 또는 흑갈색(黑褐色)의 걸쭉한 액체이다.
- 2 코끼리의 조상은 고대에는 아주 추운 북극, 즉 지구의 북반구(北半球)에서 많이 살고 있었다.

#### 1등 20명

최성복	(마산 안월교 6년)
김광진	(서울 종로교 5년)
이정옥	(서울 소의교 6년)
윤한우	(인천 송의교 5년)
박찬호	(서울 재동교 6년)
안병식	(칠곡군 해안교 5년)
박희락	(서울 한남교 5년)
정재택	(서울 북성교 6년)
김영준	(광주부 양동 107)
박영식	(서울 사범부속 4년)
명희희	(부산 남일교 5년)
홍동기	(서울 효제교 4년)
최호남	(서울 당산교 4년)
강희연	(서울 영리동 144)
서우석	(한인 병천교 6년)
황병철	(서울 영희교 )
김성길	(군산 구암교 6년)
김성집	(부산 초양교 6년)
방부현	(충남 청양교 6년)
민병훈	(서울 회화교 6년)

#### 2등 60명

이정재	(고양 송원교 4년)
김국희	(서울 삼천교졸업생)
김유호	(서울 광희교 5년)
이종문	(서울 중앙동11가 6)
이정	(서울 효창교졸업생)

김희진	(대전 제1교 6년)
윤영행	(마산 안월교 6년)
정대현	(일제 북평교졸업생)
정종구	(광천 제2교졸업생)
유상현	(마산구 온양동 설오교 2구)
이태식	(한양 제1교 4년)
재필식	(강원 강릉교 5년)
유종하	(서울 종로교 6년)
김봉수	(서울 남산교 6년)
장기성	(장호원 제1교 4년)
임성대	(광주 서석교 5년)
이정재	(서울 교동교 5년)
남상호	(강원 춘천교 3년)
김갑삼	(경북 안동교 2년)
이종우	(경기 안양교 졸업생)
박성원	(수원 신동교 5년)
박옥기	(부산 동양교 6년)
신국희	(전남 광주대성교 5년)
이영희	(경남 밀양교 6년)
이남식	(강경 신양교졸업생)
최일문	(대구 회동교 6년)
윤강환	(서울 영희교 5년)
이인하	(서울 소의교 6년)
박승훈	(서울 효제교 5년)
이재하	(서울 서빙교 3년)
나용하	(경기 신곡교 6년)
	(충남 서천교 6년)

황용숙	(경남 통영교 6년)
최달림	(부산 동래교 3가 450)
배정숙	(부산 부남일교 5년)
권오현	(충남 보령교 5년)
정순영	(서울 청운교 6년)
윤영희	(서울 마곡교 6년)
김현희	(서울 회화교 5년)
이근수	(서울 영동교 5년)
최재영	(서울 청계교 6년)
박태원	(서울 한남교 6년)
박태원	(마산 성호교 6년)
이재원	(서울 광명교 6년)
김영환	(서울 양천교 3년)
오혜원	(한인 서원교 3년)
박일성	(서울 수송교 5년)
박민자	(서울 창신교 6년)
김희원	(마산 회현교 6년)
김유자	(서울 태평교 4년)
김유자	(서울 태평교 4년)
노영현	(서울 재동교 3년)
최희준	(서울 광희교 5년)
최정희	(서울 부성교 5년)
윤영희	(서울 양천교 4년)
홍영익	(서울 동양교 6년)
김재원	(한인 창신교 3년)
김종기	(충남 서천교 6년)

# 소학생의 귀엽기

▲저는 듯한 여름의 증복 더위를 맞이하면서, 나무 그늘 밑에서 선생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땀방울로 맺어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동무 "소학생"을 읽을 때 이처럼 애 써주시는 선생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금 비는 바입니다. (경북 김천군 김천읍 평화동 369번지 박 옥주)

△고맙습니다. 이곳은 가을이 한창입니다. 날씨도 선선해 지고 했으니 더욱 힘써 보겠습니다. (기자)

▲사학년 되는 서울의 동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무덤던 여름에 훌륭한 "소학생"으로 공부 하시기에 얼마나 힘 쓰셨습니까. 시골에 있는 저도 "소학생"으로 서울의 여러분에게 지지 않을 만큼 힘써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드 친한 벗이 되기에 노력합니다. (강원도 강릉 국민교 이태식)

△서울의 여러분도 사골의 동무들과 친해 주십시오. (기자)

▲처음으로 구락부의 문을 두드리게 되니 이제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 오월부터 독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제가 서점에 100점을 받아야 "소학생"을 사라고 100원씩 주시기 때문에 사보기가 꽤 힘들어요. 그런데 한가지 물렸는데, "갈갈 박사" 보내는데 봉투 겉에 무엇이라고 씁니까. (서울 회화국민교 3년 김 경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늘 100점을 받

으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절봉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영보빌딩 3층, 아현 소학생 편집부 라고 써 주십시오. (기자)

▲선생님 날씨가 더워 애쓰시겠습니다. 저는, 제 동생과 어머니와 같이 "소학생"을 펴놓고 읽었을 때 한없이 기쁠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소학생"을 다달이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런 데 "척척 박사"는 왜 그렇게 꼭꼭 맞을까. 여터 선생님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부산 부민 국민교 박 울림)

△그렇게 귀여워해 주시는 까닭에 여러선생님은 더욱건강해지셨어요. 부산은 아직 더울 터인데 몸조심하여 공부해주세요. 그리고 "척척 박사"께서는 모르시는게 없이 무엇이든지 척척 맞추신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셔서 즐겁주세요. (씨동이)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인데 56호부터 애독자가 되어 열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재더있는 것은 "하얀 흑배"와 "회노치오"였는데, 이달이 마지막이 되어 대단히 유감입니다. 한가지 물어 볼 말은 중학생도 "갈갈 박사"나 "척척 박사"를 보내도 좋은지요. 그럼 안녕히(정기도 일백군 연안여중 2년 황 옥섭)

△이제부터는 장래의 회노치오대인으로 운봉이. 갈주름. 그리고 오오구리와 친해주시요. 그리고 잡지이름은 "소학생" 이래도 소학생간의 것이 아니라 중학생 여러분의 것도 됩니다. 많이 보내주시요. (기자)

▲다음 달부터 "소학생 구락부"의 이름을 "소학생 클럽"이라고 고칩니다. 그리알아 주십시오. (씨동이)

# 씨동이

★가을이 되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을 공복에 바꾸시고, 사골에서는 곡식 길기에 바쁘고, 모두모 두바쁜 가을이 되었습니다. 편집실에서 애독자 여러분에게 지지 않도록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즈음, 좋은 소식이 하나 뛰어 들어와서 여러 기자 선생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즉, 지난 달에 나온 "소학생" 9월치가 하나 안 남고 팔릴때 마 팔려 버렸답니다. 그것도 사골에는 한원도 못 가고 더 선을에 흠어졌던 까닭에 사골에 계신 애독자들 위하여 부랴부랴 재편집 열출께나 시골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골의 여러분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기 바 이 없다고, 기자선생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 하신답니다.

★애독자 상타기 문제가 매달 계속하게 되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었거니와 지난달부터는 1등이 열명에서 스무명, 2등이 40에서 6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품도 좋아졌으니 많이 응모해 주세요. 독자가 늘면 볼수록 페이지수도 늘고, 값도 싸지고, 상타기 당선자 수도 늘게 됩니다.

★우새 종이 값이 매일 같이 싸지고 있어 애독자 여러분의 수호보가 책을 많이 짤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혹은 반년이나 일년치의 돈을 미리 적립이나 본사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고 합니다.

4232년 10월 1日發行  
**소 학생 · 값 100 원**  
**10 월 치★제 71 호**  
 編輯人 尹 石 重  
 印刷人 金 元 植  
 發行所 兒 葛  
 4232年 9月 30日 印刷 5200部  
 서울 電話 2-58 82 4111  
 總販賣 乙西文化社  
 서울 鐘路 4232  
 振替 서울 5706  
 振替 光化門 5710  
 振替 01875  
 振替 34925  
 振替 30325

서울신문社 印刷局  
 (23年 9月 30日 印刷 5200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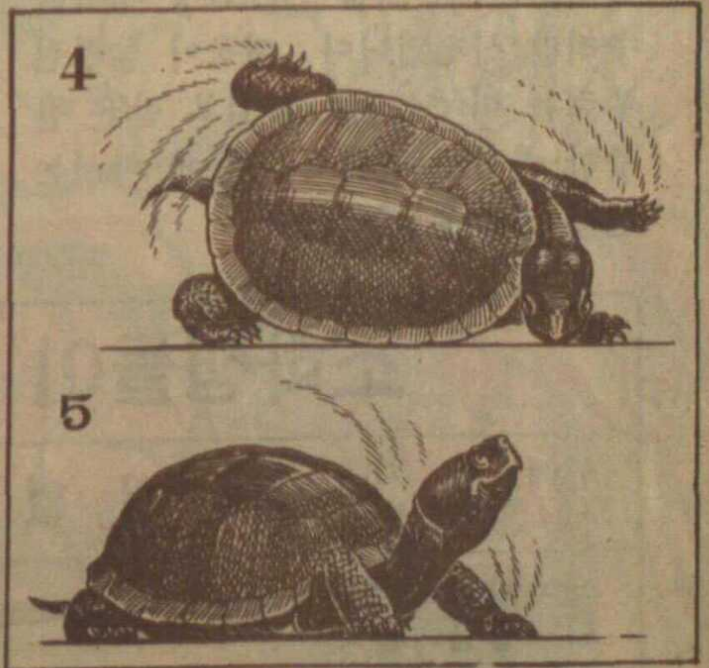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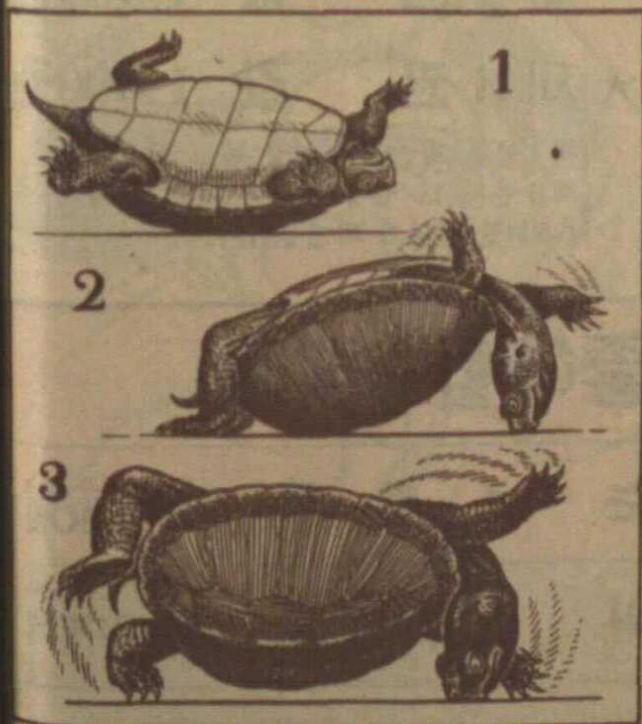
# 거북의 재주

지난 8월 15일, 전라남도 강진에서 굉장히 큰 거북이 잡혔다는 것은, 여러분 다들 아시지요?

이 그림들은 거북의 성질과 재주를 나타낸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거북 중에는 사납고 포악한 거북도 있습니다만, 성질이 순하여, 동물원에서 아이들을 등에 태우고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 ★ 자빠졌을 때 일어나는 꼴 ★



## ★ 고양이를 혼내주는 거북 ★



집집이 대대로 물릴 보배

# 조선말 큰 사전

조선어 학회 편찬 · 을유문화사 발행

학생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집이면 이 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이요 가장 정확한 우리말 사전입니다. 더욱이 들쭉꾸부러는 미국으로부터 기부 받은 훌륭한 물자로 만들기 때문에 다시는 얻기 어려운 책입니다.

★ 제 1 권      값 2,000원

★ 제 2 권      값 1,500원

★ 제 3 권      값 1,500원

{ 제 1 권과 제 2 권은 지금 팔고 있으며,  
제 3 권은 11 월에 팝니다. 값도 대개  
1,500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

## 소학생들이 좋아할 책들

안데르센 지음 서향석 번역	그림 없는 그림책	(을유문화사) 값 130원
아미첼스 지음 이영철 번역	사랑의 학교	값 300원
그림 얘기책	린 큰	값 150원
조복성 지음	곤충 이야기	값 150원
주요섭 지음	웅철이의 모험	값 130원

주문은 서울特別市 鍾路區 鍾路2街82 乙酉文化社로 하십시오

